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회보 19권 2호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2020 7

- 제19대 NAKS 집행부 사업공고와 안내
- NAKS 집행부 사업보고
- 14개 지역협의회 사업보고 및 계획
- NAKS 특별기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학교
 - 한국학교 졸업

후원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이 책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집행부 임원진 Executive Officers

총회장 President	오정선미 Sunmi Jung Oh president@naks.org
부회장 Vice President	한연성 Yeon Seo vp-yh@naks.org
	심수목 Shim Simon S vp-ss@naks.org
	임지현 Chi Rim vp-cr@naks.org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	한희영 Hee Young Han gs@naks.org
재무 Treasure	정광미 Eunice Chung treasure@naks.org
편집장 Editor-in Chief	권예순 Yeasoon Kwon editor@naks.org
교육 Education	이상훈 Sanghoon Nathan Lee edu@naks.org
홍보 Press Release	여승진 Seung Jin Yeo pr@naks.org
웹 간사 Web Admin	남궁령 Ryan Namkoong web@naks.org

지역협의회 회장 Presidents of Regional Chapters

남서부지역 Southeast	박은주
뉴잉글랜드지역 New England	남 일
동남부지역 Southeast	선우인호
동북부지역 Northeast	김해성
동중부지역 Mid-Atlantic	이경애
미시간지역 Michigan	김선미
북가주지역 N. California	황희연
서북미지역 Northwest	박수지
워싱턴지역 Washington D.C	김선화
중남부지역 Midsouth	구교성
중서부지역 Midwest	이미희
콜로라도지역 Colorado	유미순
플로리다지역 Florida	김진희
하와이지역 Hawaii	손애자

발행일 2020년 7월 15일 통권 제19-2

발행인 오정선미

편집인 권예순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인쇄 대진인쇄소 디자인 장윤영 이미지 출처 freepik.com

목차 CONTENTS

재미한국학교 설립 목적 및 사명	1
3대 중점사업 및 조직도 /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3
인사말 / 오정선미 NAKS 총회장	5
격려사 / 오준석 NAKS 이사장	6
축사 / 이수혁 주미대사	7
공고 및 안내	
NAKS-ACTFL 한국어교사 인증제	8
제6차 차세대 리더상	9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	10
NAKS 표준교육과정 영문판 제작	11
제1회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12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품 공모전	13
제1회 K-DOKDO UCC 공모전	14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문제은행	15
제2회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16
2020년도 SAT 한국어 모의고사	17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18
19대 2018-2020년 NAKS 재정 관리	19
회보/한인교육연구 발간	19

NAKS 집행부 사업보고

19대 사업보고	20
사진으로 본 NAKS 활동	24
언론기사로 본 NAKS 활동	32

지역협의회 사업 보고 및 계획

남서부, 뉴잉글랜드, 동남부, 동북부, 동중부, 미시간, 북가주, 서북미, 워싱턴, 중남부, 중서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36
--	----

NAKS 특별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학교	64
한국학교 졸업	81

임원 한마디 / 19대 임원진

95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설립 목적 및 사명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금지 함양, 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인디애나 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 Goal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Annual SAT Korean Pilot Test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7 books total so far)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Develop & Publish SAT Korean Workbook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Publish Annual White Paper

www.naks.org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CT
Mid-Atlantic Chapter: PA, DE, NJ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WV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UT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요사업

3대 중점사업

- 교사의 역량과 저변 확대
- 표준화된 교육과 운영 지침서
-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10대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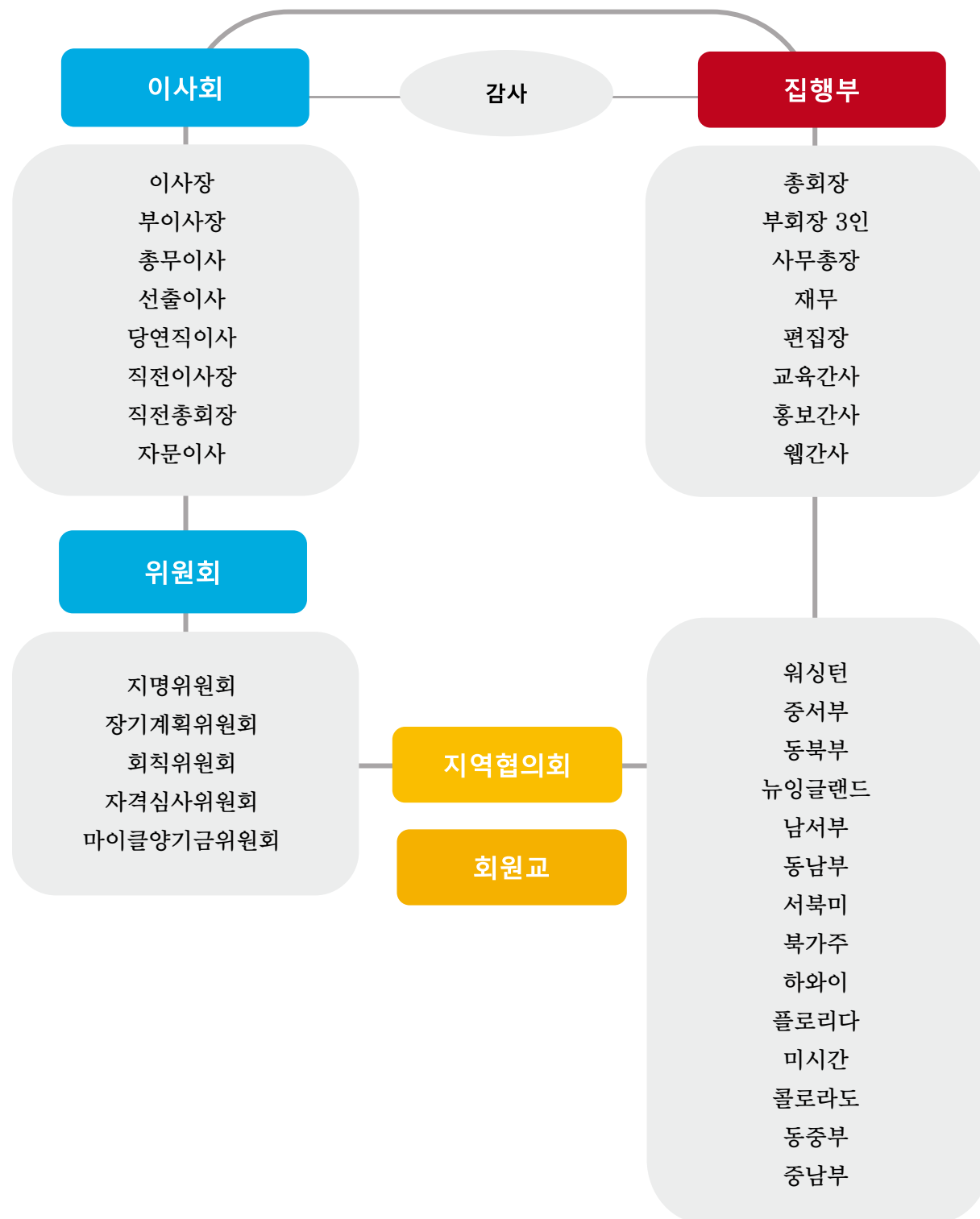
- 학술대회
- 협의회 회보, 한인 교육 연구지 발간
- 지역협의회의 활성화 및 차세대 교사 육성
- 집중 연수, 운영자 워크숍, 순회 연수 및 차세대 교사 연수회
-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 학생 경시 대회 확대
- 전문화된 교육위원회 도입
- 세분화된 운영 지침서 도입 및 협의회 운영 표준화
- 낙스의 교육용 APP 개발 및 운영
-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NAKS 및 14개 지역협의회 창립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1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1981. 04. 18	Washington D.C.	주하성
2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1984. 03. 23	Washington D.C.	염영일
3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3.	Chicago, IL	김기원
4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1985. 05. 11	New York, NY	허병렬
5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1989. 10. 14	Boston, MA	김영집
6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1989. 11. 18	Houston, TX	하인태
7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1990. 11. 03	Atlanta, GA	김경숙
8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1	Seattle, WA	오계희
9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10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03	Honolulu, HI	조성천
11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1991. 03. 16	Miami, FL	정대용
12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1	Detroit, MI	남영림
13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1992. 03. 28	Denver, CO	선창균
14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2000. 09. 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5	중남부지역협의회 창립	2007. 10. 13	Indianapolis, IN	김용순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조직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선생님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봐요!



오정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일선에서 묵묵히 동포 차세대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정체성 교육을 위해 봉사하시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원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03년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들의 이민사와 함께 시작된 한국학교 역사상, 미주 전 지역에 걸쳐서 일선 한국학교들이 휴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을 잘 이어온 한국학교 특유의 끈끈함과 탄탄함으로 우리 모두 이 고비를 잘 견디리라 믿습니다.

21세기를 맞아 한국학교도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학생들이 이민 3대, 4대로 채워지고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학교에 등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교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기에 차세대 리더십 워크숍은 물론 차세대 교육위원회를 꾸려서 차세대 교사 양성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NAKS-ACTFL 한국어 교사 인증제, 영문 NAKS 표준교육과정 등을 준비하여 NAKS가 미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확고한 인정을 받고 또한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미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체성 포럼 및 역사문화 캠프,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나의 꿈 말하기 및 각종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정체성 함양 및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24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모여서 시험을 칠 수 없는 환경이라 자가 테스트 시스템으로 PPT 했고 QR Code로 학생들이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변화된 한국학교 환경에 우리 회원 학교들이 발 빠르게 적응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영어권)> 교재의 전 학년, 모든 과를 PPT로 제작하였고 수준별 역사문화 수업자료 등 많은 교육자료들이 NAKS웹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을학기를 준비하시면서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한국학교와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도와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21세기 독립군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한국학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봉사 정신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극복합니다.



오준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건강하신지요? 오래 전인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서로 도우며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창립된 지 어느덧 39년을 지나 내년이면 40주년이 맞습니다. 어려서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건너온 아이들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산하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제3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각 학교가 제대로 수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학술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학교들과 우리 2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학교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오정선미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전 지구의 세계화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류로 아우러지는 K-Pop, K-Drama, K-Movie 등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뛰어난 문화역량과 함께 인터넷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에도 힘입은 바 큼니다. 각 나라 간의 무역과 교류의 증대는 수출입과 관광, 유학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 인류는 첨단인 상품과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빛이 찬란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은 세계화의 또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듯이 보이던 세계가 서로 단절되고, 때로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의 위기를 개방성, 투명성, 시민의식에 기반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범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방역 노하우나 정보 공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으로 꾸준히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천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코리아, 세계화라는 용어가 상징하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례와 표준을 따라가는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류나 K-방역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세계의 선례가 되고, 표준이 되는 시대를, 세계적인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고, 전 인류를 위해 함께 나누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글학교 교육자 여러분!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우리 동포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역사와 한국어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미대사관도 우리 동포 자녀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회보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오정선미 총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속적 발전에 기원합니다.

NAKS-ACTFL 한국어 교사 인증제

목적

- 1)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한국학교 교사 양성 및 한국어 전문가로서의 발판 마련
- 2) NAKS가 ACTFL과 같은 세계적 외국어교육단체와 협력하여 만든 교사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각 교사들의 자긍심 함양

내용

레벨 1에서 3까지 마치면 NAKS-ACTFL 한국어 교사 인증을 받게 된다. 총 연수 비용은 \$500이지만 NAKS 에서 \$400을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자의 비용은 \$100

지원자격

- 1) 현재 한국학교 교사로서 한국어를 3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
- 2) 한국어를 전공했거나 대학이나 기관에서 한국어교사 양성 강의 및 교사인증 수업을 수강한 교사
- 3) 각 협의회에서 2명

지원시 필요한 서류

- 1) 지원서
- 2) 증명서 (한국어, 문화, 역사의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할 서류)
- 3) 추천서

연수 시기

- 1) 2020년 1월 11일~ 2월 28일, 1단계의 과정 완료
- 2) 2020년 3월 2일~ 5월 23일, 2단계의 과정 완료
- 3) 2020년 5월 24일~ 8월 15일, 3단계의 과정 완료

사업 일정

- 1) 10월 30일 공문 발송
- 2) 11월 27일 추천서 마감
- 3) 2020년 1월 11일~2월 28일: 1차 레벨 인증
- 4) 2020년 3월 2일~ 5월 23일: 2차 레벨 인증
- 5) 2020년 5월 24일~8월 15일: 3차 레벨 인증

제6차 NAKS Junior Leadership Awards (차세대 리더상)

차세대 교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상의 취지는 각 지역의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의회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며, 각 지역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교사 육성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2019년 5차에는 14개 지역협의회에 속한 학교에서 총 525명이 수상을 하였다.

부문

- 금상: 학교에서 봉사한 시간이 47시간 이상인 보조교사
 - 은상: 학교에서 봉사한 시간이 42시간 이상인 보조교사
 - 동상: 학교에서 봉사한 시간이 37시간 이상인 보조교사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한 학교 일정 차질에 따라 제6차 NAKS Junior Leadership Awards는 2020년 봄학기 봉사시간을 제외하였음)

2020년 제 6차 차세대 리더상 일정

월	날짜	내용
5월	19일	NAKS Junior Leadership Awards (차세대 리더상) 공문을 각 지역협의회로 발송
7월	18일	각 지역협의회 별로 취합된 수상자 명단 제출 마감
7월	말	각 지역협의회 별로 학술대회에서 상장 배포

2019년 지역 협의회별 수상자 수

지역협의회	수상자 (명)	지역협의회	수상자 (명)
남서부	35 (64)	서북미	88 (60)
뉴잉글랜드	24 (12)	워싱턴	77 (63)
동남부	0 (46)	중서부	21 (27)
동북부	110 (43)	중남부	5 (11)
동중부	37 (23)	콜로라도	9 (8)
미시간	19 (22)	플로리다	15 (9)
북가주	84 (64)	하와이	1 (1)

(괄호안 숫자는 2018년도 수상자 명수임)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자료 개발

목적

역사문화 교육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수준별 역사 문화 교안을 개발하여 역사 문화 수업을 보다 용이하게 일선 수업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수준별 역사 문화 교안 작성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확립 및 수업 보조 교재 개발

개발 위원

4기 (2019년 9월 ~ 2020년 8월)

위원장 : 김선미(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위 원 : 정은정(워싱턴 엘한국학교), 고수지(동남부 영생한국학교), 유설아(시애틀통합한국학교)

활동사항

4기 주제 - 고려 & 우리조국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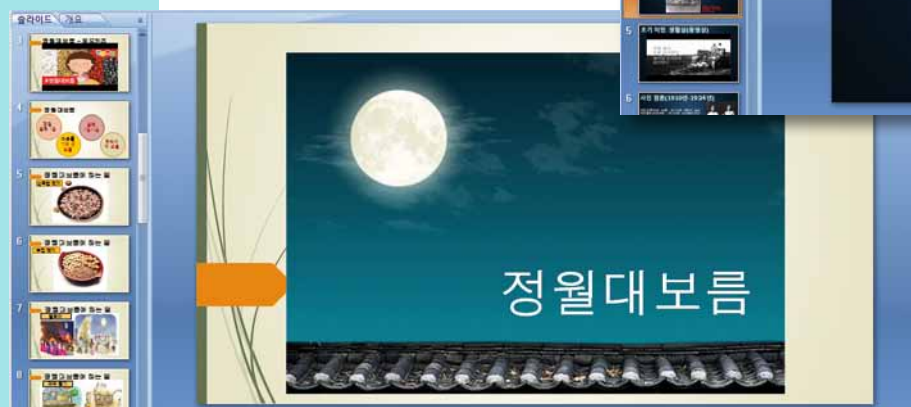
교안 / 교사자료/ 평가자료 / 학생자료 / 학생활동지 / PPT

개발 되어 나스 웹사이트에 올라간 수준별 역사 문화 자료

- 추석
- 정월대보름
- 설날
- 삼국시대
- 한국이민사
- 대한민국 국가 상징
- 3.1운동
- 세종대왕
- 전통의례
- 정조



▲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 자료 중급 ppt 예



▶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 자료 초급 ppt 예

NAKS 표준교육과정 영문판 제작

NAKS National Standard Guidelines for Korean Schools: Objectives, Curriculum, Assessments, and Lesson Plans

목적

주말 한국학교가 미국 내에서 헤리티지 랭귀지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 영문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2012년에 만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교육과정>은 1,000개 이상의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소속된 한국학교를 위해 제작되었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ACTFL의 감수를 통해 완성하여 미국 내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외국어 교육 과정으로서 한국어 자리매김을 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19년에 23분의 1기 수료자를 배출하고, 현재 2020년에 13분이 이수 중인 2기 NAKS-ACATFL 교사인증제에서는 ACTFL의 첨단 외국어교사교육방법을 도입하여 교육하는 동시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표준교육과정을 기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차후 영어권의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대비해 표준교육과정의 영문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용

- 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 2) 수정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2년 표준교육과정>을 영문으로 번역함
- 3) 미국 각 주마다 교육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넣기 위한 기본 문서 등을 마련
- 4) 영문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표준교육과정이 1차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ACTFL의 지원을 받도록 연계함

사업 일정

- 1) <2012년 표준교육과정> 영문 번역 완료: 2020년 4월
- 2) ACTFL 교정 및 감수: 2020년 5월
- 3) 영문판 발간: 2020년 8월

제1회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14개 지역 협의회의 차세대 교사로 이루어진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육하고, 더 많은 동료 차세대 교사들의 한국학교 및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권장하려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의 세대 변화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이를 위한 미래를 계획하고자 한다.

지원자격

- (ㄱ) 14개 지역협의회 회원학교 소속 차세대 교사
- (ㄴ) 2세(미국 출생) 혹은 1.5세(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 교사로서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활동한 분

제출서류

- (ㄱ) 신청서
- (ㄴ) 학교장 추천서
- (ㄷ) Essay (다음 중 택일)
 - 차세대 교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사업운영을 위한 fundraising 방안

주요 업무 내용

- (ㄱ) 차세대 교사 재교육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 (ㄴ) 집행부와 함께 학술대회 시 차세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창출/운영함
 - 차세대 교사 워크숍
 -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사업 운영
- (ㄷ) Fund Raising

신청 진행 순서

- (ㄱ) 지원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작성 후 소속 지역협의회로 11월 23일까지 제출
- (ㄴ) 지역협의회 회장님들께서는 모든 제출서류를 취합하시고 확인 하신 후 2019년 11월 30일까지 NAKS 교육간사에게 제출(edu@naks.org)
- (ㄷ) 12월 14일까지 최종 5명 선발
- (ㄹ) 최종 선발자는 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모임에 참가 (2020년 1월 25일~26일)

제 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모임

일시: 2020년 1월 25일~26일 (토/일, 1박 2일)
 장소: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
 교육위원: 이영학, 노미경, 김해나, 최지환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품 공모전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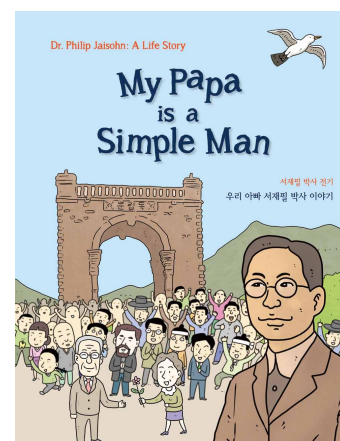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독립 운동가, 의사, 언론이었던 서재필 박사의 삶과 활동이 담긴 [My Papa is a Simple Man]을 통해, 한인 후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창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2세들이 서재필 박사의 생애와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배워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나길 원하며, 많은 학생의 참여를 권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품 공모전 공문
- (ㄱ) NAKS 14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3~12학년 재학생
- (ㄴ) 초등부(3~5학년) / 중등부(6~8학년) / 고등부(9~12학년)
 - 제외 대상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

진행순서

- (ㄱ) 신청서 제출 마감: 2020년 3월 28일(토, 미동부시간 기준)
 -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신청서 제출 (학생의 직접 신청은 받지 않음) - 서재필기념재단 (info@jaisohn.org)과 NAKS (vp-cr@naks.org) 두 곳에 동시에 이메일로 접수
- (ㄴ) 도서 발송: 2020년 4월 1일(미동부시간 기준)
 -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신청 학생들에게 무상 증정
- (ㄷ) 작품 제출 마감: 2020년 5월 30일(토, 미동부시간 기준)
 - 반드시 첨부된 응모작 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함
 - 보낼 곳: info@jaisohn.org 이메일로 접수
- (ㄹ) 수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2020년 6월 15일(미동부시간 기준)
 -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담당 학교 선생님께 통보
- (ㄴ) 시상식: 2020년 7월 학술대회 기간 중에 시상함
- (ㄷ)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0년 NAKS 서재필 박사 전기 창작품 공모전 안내문" 참조



(ㄱ) 심사 및 당선자 선정

당선자 심사: 공모전 심사위원회 (서재필 기념재단)

- ①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②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작품은 심사에서 감점 처리
- ③ 학생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④ 지도 교사나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이 느껴질 경우 감점 처리
- ⑤ 영어와 한글 모두 가능하나 한글로 표현했을 시 가산점 있음
- ⑥ 응모 학생의 연령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하여 심사
- ⑦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도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⑧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제1회 K-DOKDO UCC 공모전

이 공모전의 목적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독도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독도 수호 정책의 성공적 추진 기여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식 형성과 자료망 구축을 돕는데 있다.

K-DOKDO UCC 공모전 참가 대상

NAKS 14 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개인 또는 단체)

공모주제

국내외 독도 홍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자유 주제의 UCC (플래시몹/패러디/다큐/광고/홍보영상/애니메이션/CM 송/뮤직비디오 등)

제출형식

5분 (300초) 이내/용량 1GB 이하/사이즈 1920x1080 (FHD) 이상
WMV, MP4, MOV, MKV 중 택일/저작권, 음악, 폰트 사용승인 필수
한국어 이외의 나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 자막 첨부

진행순서

- 1)접수기간: 2020년 3월 16일(월) - 5월 31일 (일) (한국시간 기준)
본인 SNS 계정에 업로드 후 이메일 (dokdo@koreadokdo.or.kr)접수
(#독도재단 #K독도 #NAKS #독도 등 태그 필수)
- 2)제출서류: 응모작품, 응모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품 사용 동의서
- 3)수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2020년 6월 19일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4)시상식: 2020년 7월 중에 수상자에게 개별 배송
상장 및 상금 (총 \$2,500)-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시상식 참여 경비 (항공과 숙박) 별도 지원
경품 제공 (모든 참가자에게 아마존 상품권 - \$20 발송)
유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0년 K-DOKDO UCC 공모전 안내문" 참조

* 문의: 독도재단(dokdo@koreadokdo.or.kr, 054-272-6513)
교육간사(edu@naks.org, 917-595-9958)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문제은행

목적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와 반 배치고사를 위한 온라인 문제 은행 구축

자료 1)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한국어 영어권 1 - 6 범용 교과서 문제집 (WAKS 발간)
2) 제1회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문제집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문제은행 프로젝트는 나스 19대 집행부의 사업으로서 심수목 위원장을 포함한 총 6분의 한국어 교사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가을학기부터 나스(NAKS)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학교와 온라인 수업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별 표준 평가와 반 편성 배치고사의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제하는 교사들에게 문제은행이라는 온라인 툴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편리한 문제 출제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일선 교사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은행에 업데이트 될 계획이다. 문제은행에는 모든 문제들이 수준별, 유형별로 나뉘어지고 또한 듣기, 낱말, 문법, 읽기, 그리고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은행을 통한 온라인 평가는 곧바로 채점과 문제 풀이가 가능하며 또한 데이터를 통해서 참여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유튜브 및 많은 자료들의 링크가 해당 문제에 연결이 되어

평가를 통한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한국어 평가와 반 배치가 가능하며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한국어 문제집의 문제를 통해서 단위 별로 어느 교재에 적합한 실력 인지 평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다양한 문제를 선택함으로 기존 문제집보다 쉽고 빠르게 맞춤형 출제가 가능해졌고 학생들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더욱 흥미로운 평가와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수업의 큰 효과로 현실화되었다.

2020년 8월부터 나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제은행 자료를 공유하게 되며 문제은행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문제은행 위원들의 온라인 도움과 웨비나를 통해서 문제은행 시스템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위원장 심수목

프로젝트 위원

조덕현, 남궁령, 이수정, 강소영, 임수진



▲ 표준평가 1차 화상회의 사진

제2회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에도 한국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민족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요즘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한국학교 교사, 학생들이 민간 외교관으로 다양하게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함으로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미국 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각 지역에서 선발된 기자들이 지역에서 잘못 알려진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바로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3) 기자/지도교사의 할 일

- (ㄱ) 미국 내 교과서 및 웹사이트, 인터넷, 언론기관 및 박물관등에 한국 자료에 나타난 오류,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알림
- (ㄴ) 한국학교나 미국학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 제작, 보급
- (ㄷ) 자료 개발 및 전시,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

기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 1) 장학금(\$1,000)과 주미대사 상장
- 2) 학술대회 시상식 및 포럼 참석: 항공료 \$200, 숙박(1박2일) 지원
- 3) 학술대회 등록비 제공(가족은 제외)
- 4) 청소년 정체성 포럼에 발표
- 5) 작성된 프로젝트는 NAKS웹사이트와 교육부에 보내짐
- 6) 그 외 다수의 혜택이 주어짐

지원서

- 1)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 에세이(기자)
- 2)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 추천서(기자)
- 3)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지도교사 추천서(지도교사)

추천 마감 2020년 3월 10일

선정 결과 알림 2020년 3월 25일
(개인과 협의회장에게 알림)

활동 일정

- 1) 프로젝트를 위한 에세이 마감: 2020년 3월 10일
- 2) 1차 프로젝트 마감: 2020년 5월 10일
- 3) 2차 프로젝트 마감: 2020년 5월 30일

문의 한연성 부회장(vp-yh@naks.org)

2020년도 SAT 한국어 모의고사

NAKS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제 24 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자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11 월에 있는 본고사를 대비하거나 한국어 실력 점검을 위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한인 후세들의 한국어 교육과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님들과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귀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용	날짜	기타
출제마감일	2019년 12월 22일	문제 마감
모의고사 안내 공문 1차 발송	2020년 1월 10일	
자체 출제 교정 점검 완료	1월 25일	감수위원에게 발송
(임태혁 감수위원)		
홍보자료 발송	1월 31일	
감수 위원 감수 완료	1월 30일	제출 위원에게 재발송
감수 후 교정 완료	2월 3일	
최종본 완료	2월 8일	3세트: 지문, 지문없는것, 난이도 있는 것
듣기 시험 MP3 녹음파일 완료	2월 15일	성우 : Brian Yoo
2차 공문 발송	2월 17일	
지역별 응시자 신청 마감	2월 22일	
지역 협의회 배부,우편 발송	3월 1일	지역별로 관련문서 발송
문제와 답안지 지역 발송	7월 27일	추후 학교별로 시험 실시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재미한국학교협의회 Online Class Support Team은
각 회원교의 온라인 수업자료를 지원합니다

NAKS 온라인 수업자료실
<https://www.naks.org/jml/naks-online-classes-menu>

사업 목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Online Class Support Team은 완성도 있는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 회원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수업 환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영어권)> 12레벨, 유아유치 2레벨, SAT 한국어, 고학년을 위한 기초반, 중고급을 위한 글쓰기 등 총 16레벨로 세분화하여 PPT와 그에 따른 보충자료를 제작. 또한 퀴즐렛(Quizlet) 사이트에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영어권)> 전 과정의 단어를 만들어 올려서 교사와 학생이 재미있는 방법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함. 총 238개의 PPT 자료가 완성됨

사업진행

14개 지역협의회 산하 회원교 교사 중에 온라인 수업에 유능한 분들을 추천받아 Online Class Support Team을 구성하였으며 NAKS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자료 만들었고 콜롬비아대학교 백승희, 이현규 교수님의 감수를 거쳐 낙스 온라인 수업자료실에 올라갔다.

NAKS 온라인 수업자료실: <https://www.naks.org/jml/naks-online-classes-menu>

4월 19일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 1차, 2차 이메일 발송

4월 23일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 1차 Zoom Meeting

6월 30일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 10차 메일 발송/ 사업완료

팀원

NAKS online class support team (사업담당:사무총장 한희영)					
	레벨	한글	영문	학교	협의회
1	NAKS_1-1	윤(박)은경	Eunkyoung Yun	벽스카운티한국학교	동중부
2	NAKS_1-2	김지영	Clara Lee	찬양한국학교	동북부
3	NAKS_2-1	박혜윤	Haeyoon Park	워싱턴통합한국학교/MD	위싱턴
4	NAKS_2-2	도지혜	Jeehaeh Do	불타한국학교	중서부
5	NAKS_3-1	권순형	Soonhyung Kwon	새하늘한국학교	북가주
6	NAKS_3-2	황정숙	Jane Cho	사랑한국학교	동북부
	NAKS_4-1				
7	NAKS_4-2	원정희	Jung Hee Won	뉴저지 한국학교	동북부
8	NAKS_5-1	송민선	Min Sun Song	워싱턴통합한국학교/MD	위싱턴
9	NAKS_5-2	송아리	Ari Song	새하늘 한국학교	북가주
10	NAKS_6-1	고은아	Grace Ko	성약한국학교	동남부
	NAKS_6-2				
11	NAKS_SAT	손민호	Minho Son	뉴라이프한국학교	북가주
	NAKS_중고급 글쓰기				
12	NAKS_유아A	최지현	Jihyun Choi	달라스한국학교 캐롤론 제1캠퍼스	남서부
13	NAKS_유아B	김 솔	Sol Kim	뉴올리언즈 한국학교	남서부
14	NAKS_고학년을 위한 한국어 기초	박소미	Somee Whang	달라스한국학교 맥키니캠퍼스	남서부
15	감수	콜롬비아대학교 백승희, 이현규 교수			

www.naks.org

19대 2018-2020년 NAKS 재정 관리

19대 재정 관리

- 18대 은행 계좌 연속사용으로 인한 재정 관리의 지속성과 투명성 확대 유지
- Online QuickBooks 사용으로 Bank Statements와 일치하는 정확한 실시간 관리
- 총회장, 감사, 회계사 등 관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회계자료 열람 가능
- 낙스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 회장단의 교체에도 연속성이 유지됨.

Tax 보고

-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보고 - 990
- 사례비 년 \$600 이상 수령자에 대해서는 W9 form 확보하고 Form-1099-MISC 발급

19 대 전반기 재무 감사

일시: 2020년 1월 2-3일

장소: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 Philadelphia, PA 19113

감사: 홍태명 이사, 김현 이사

참가자: 오정선미 총회장, 오준석 이사장, 정광미 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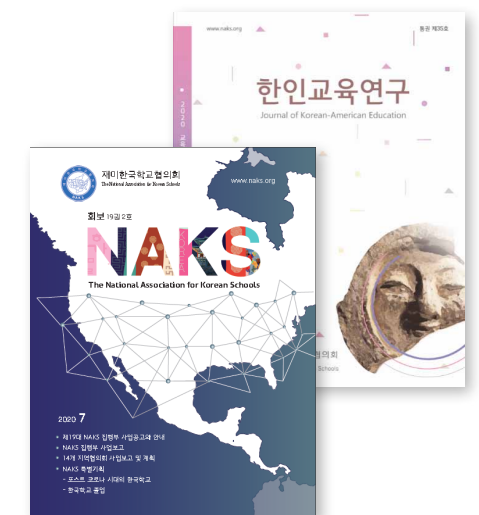
회보/한인교육연구 발간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 35호)

- 주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
- 발간: 2020년 7월 15일

회보 (19권 2호)

- 2020년 7월 15일 발간, 전면 컬러, 96페이지, 500부
- 지역협의회를 통해 각 회원교에 배부





19대 사업보고

(2019년 4월 ~ 2020년 6월)

2019

4월

- 1 2일 교육부 후원 사업 및 주미대사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사업 논의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김명희 워싱턴지역협회장, 신문규 교육관, 박상화 원장)
- 2 4일 차세대 워크숍 공문 발송
- 3 9일 NAKS 19대 7차 임원 화상 회의: 9~11시 (동부시간)
- 4 11일 NAKS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자료 개발 위원 9차 화상 회의
- 5 12일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 개막 행사 기념사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 지역협회장)
- 6 13일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 시가행진 참석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 지역협회장, 심수목 부회장)
- 7 18일 제3회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2차 공문 발송
- 8 20일 NAKS 회보 19권 1호 발간
- 9 25일 NAKS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자료 개발 위원10차 화상 회의
- 10 통일교육과 현장 견학 공문 발송

5월

- 11 7일 NAKS 19대 8차 임원 화상 회의 (9~11시 pm)
- 12 12일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공문 발송
- 13 13일 제5차 NAKS Junior Leadership Awards 공문
- 14 14일 영생한국학교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축하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 지역협회장)
- 15 19일 서북미협의회 후원의 밤 축하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 16 20일 제3회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마감연장 공문 발송
- 17 27일 제1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 참가자 발표
- 18 28일 NAKS-서재필재단 교육사업 논의 만남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 지역협회장, 최정수 서재필재단 회장, 이정 서재필 재단 사무원, 서경희 서재필재단 사무원)

6월

- 19 4일 NAKS 19대 9차 임원 화상회의 (9~11시 pm)
- 20 10일 제23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만점자 발표
- 21 13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자료 개발 위원 14차 화상 회의 (일시: 2019년 6월 13일)
- 22 15-16일 제5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개최
장소: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ive Philadelphia, PA 19113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19대 집행부 임원, 차세대 교사, 이선호 재단주재관, 최규용교수, 오승연 벨렐한국학교장, 팀하 하형록 대표, 최정수 서재필재단회장
- 23 15일 NAKS 19대 10차 임원 회의 (일시: 2019년 6월 15일 9:30 ~11:30 pm)
- 24 18일 뉴욕총영사 면담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심수목 부회장, 이상훈 교육간사)
- 25 24일~7월 9일 한국 출장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이상훈 교육간사, 황현주 동북부협의회회장)
1) NAKS에서 하는 청소년 직지 캠프 및 통일연수원 캠프 참여 (한연성 부회장, 이상훈 교육간사, 황현주 동북부 협의회장),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학술대회를 홍보하고 낙스와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함.
2) 방문기관: 국립국어원,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독도재단, 김구재단, 종이문화재단, 연합뉴스, 독립기념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주시장, 고인쇄박물관, 통일미래센터, 청와대 동포담당관, 설민석 강사 등을 방문

2019

7월

- 26 14일~21일 제37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
- 27 21일 NAKS 19대 1차 학술대회 평가 임원회의 (10:00 pm, 장소: 힐튼 14층)
- 28 23일 NAKS 19대 2차 학술대회 평가 임원 유선회의 (9:00pm)

8월

- 29 4일 [공문발송]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 추천
- 30 8일 NAKS 19대 14차 임원 화상회의 (9:00pm)
- 31 20~21일 NAKS-교육부 사업 논의차 워싱턴 방문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정광미 재무, 신문규 교육관, 박상화 원장)
- 32 23일 서재필재단 방문 및 동중부협의회 교장단 연수 참가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지역회장, 이선호 재단주재관, 이용학 교육원장, 정지혜 뉴욕교육원부원장, 최정수 서재필재단회장)
- 33 24일 동중부협의회 교사연수회 참석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경애 동중부지역회장, 이선호 재단주재관, 이용학 뉴욕교육원장, 정지혜 뉴욕교육원부원장, 최정수 서재필재단회장)

9월

- 34 5일 NAKS 19대 15차 임원 화상회의 (9:00pm, 참석: 임원 전체)
- 35 27~28일 중남부교사연수회 참석(기조강연 및 분반강의,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10월

- 36 1일 [공문발송] 2020년 지역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 (담당:한희영 사무총장)
- 37 NAKS 19대 16차 임원 화상회의 (참석: 임원 전체)
- 38 3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1차 화상회의 (9:30pm) (참석:4기 위원들과 위원장)
- 39 8일 뉴욕총영사관 개천절 행사 참가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심수목 부회장)
- 40 13~14일 NAKS 차세대교육위원회 구상 모임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정광미 재무, 이상훈 교육간사)
- 41 16일 [공문발송] 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추천 (담당:한희영 사무총장)
- 42 23일 [공문발송] 지역 회장단 및 집행부 화상회의 안내 (담당:한희영 사무총장)
- 43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2차 화상회의 (9:30pm, 참석:4기 위원들과 위원장)
- 44 30일 [공문발송] NAKS-ACTFL한국어 교사 인증제 2기

11월

- 45 5일 NAKS 지역회장단 및 집행부 화상회의 (9:00 pm)
- 46 6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3차 화상회의 (10:00 pm)
- 47 15일 [공문발송] 2020년 한인교육연구 제35호 발간 협조 공문
- 48 20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4차 화상회의 (10:00 pm)
- 49 21일 재단 이선호 주재관 만남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이선호 주재관)
- 50 22~24일 ACTFL Convention 참석 및 NAKS-ACTFL 교사인증제 논의 회의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강주언 NAKS-ACTFL 교사인증제 팀장, Paul Sandrock, Director of Education)
- 51 27일 [공문발송] 2020년 회보 발간 협조
- 52 미주 한국어 기관 담당자 만남(김선영 KLTA 회장, 서주원 AATK 회장 등)

12월

- 53 3일 NAKS 19대 17차 임원 화상회의 (9:00 pm)
- 54 5일 [공문발송] 2020년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55 7일 워싱턴지역협의회 교사의 밤 참석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 56 22~24일 NAKS 2021 학술대회 호텔 탐방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심수목 부회장, 남궁령 웹간사)

19대 사업보고

(2019년 4월 ~ 2020년 6월)

2020

1월

- 57** 3~5일 2020년 지역협의회 & 집행부 연석회의
장소: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ive Philadelphia, PA 19113)
참석: 12개 협의회장, 집행부, 이사회임원, 신문규 교육관, 박상화 원장,
이선호 주재관, 팀하 준비위원장 및 필라델피아 지역내빈
- 58** 3~5일 수준별역사문화 교육개발 위원 연구회의 (연석회의와 동일한 장소 시간)
- 59**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 연구개발 모임
(연석회의와 동일한 장소 시간)
- 60** 7일 [공문발송]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등록 안내 & 강사 추천 안내
- 61** 8일 [공문발송] 대한민국 바로알리기 공문 & 추천서, 에세이
- 62** 11일 [공문발송]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공문(제1차)
- 63** 15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7차 화상회의 (10:00 pm)
- 64** 17일 [공문발송] 2020년 제9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공문
- 65** 25~26일 [공문발송] 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모임 1
- 66** 28일 [공문발송] 장기근속 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시상 공문
- 67** 29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8차 화상회의 (10:00 pm)

2월

- 68** 3일 [공문발송] 2020년 종이접기 작품대회 공문
- 69** 4일 NAKS 19대 18차 임원 화상회의: 9~11시 (동부시간)
- 70** 5일 [공문발송] 한국어 수업 학습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공문
- 71** 12일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개발 위원회 4기 9차 화상회의 (4기 위원과 위원장)
- 72** 14일 [공문발송]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2차 공문)
- 73** 15일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녹음본 파일 완성)
- 74** 18일 [공문발송]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품 공모전 공문 (한희영사무총장)
- 75** NAKS 2월 뉴스레터 발송(오정선미 총회장)
- 76** 22일 제1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모임 2
(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심수목 부회장, 한연성부회장, 이상훈교육간사, 교육위원)
- 79**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지역별 응시자 신청 마감)
- 80** 26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0차 화상회의(4기 위원과 위원장)

3월

- 81** 1일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지역별 답안지 배송)
- 82** [공문발송] NAKS 2020_집중연수 1차 공문(한희영사무총장)
- 83** 3일 NAKS 19대 19차 임원 화상회의(임원 전체)
- 84** 7일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지역별 답안지 배송완료)
- 85** 10일 신문규 교육관님 환송 간담회(참석: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심수목 부회장,
정광미 재무, 김명희 회장, 박상화 원장)
- 86** [공문발송] 제 1 회 K-DOKDO UCC 공모전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87** 11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1차 화상회의(10pm, 4기 위원과 위원장)
- 88** 13일 NAKS 3월 뉴스레터 발송(오정선미 총회장)
- 89** 14일 NAKS 19대 20차 임원 화상회의:비상대책회의 COVID-19 (9pm,임원 전체)
- 90** 15일 [공문발송] 서재필박사와 함께 하는 창작품 공모전 2차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2020

3월

- 91** 24일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 선정 발표(한연성 부회장)
- 92** 25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2차 화상회의(4기 위원과 위원장)
- 93** 27일 협회장 & 집행부 & 이사회장단 비상회의(8pm,참석: NAKS 이사장단, 14개
지역협회장, 19대 집행부 임원)
- 94** 30일 NAKS-ACTFL 위원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메뉴얼 제작건(위원,오정선미 총회장)

4월

- 95** 7일 NAKS 19대 21차 임원 화상회의(임원 전체)
- 96** 8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3차 화상회의(4기 위원과 위원장)
- 97** 13일 [공문발송]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품 공모전 3차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98** 16일 NAKS 4월 뉴스레터 발송(오정선미 총회장)
- 99** 20일 [공문발송] NAKS 38회 학술대회 내년(2021)으로 연기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100** 22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4차 화상회의(4기 위원과 위원장)
- 101** 23일 [공문발송] 제9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연기(한희영 사무총장)
- 102** 24일 Online Class Support Team 화상회의(Online Class Support Team 15분, 임원 5분)
- 103** [공문발송] NAKS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추천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104** 28일 [공문발송] 온라인 수업자료 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105** [공문발송] NAKS 38회 학술대회 내년(2021)으로 연기:대외처 11곳(한희영 사무총장)
- 106** 30일 제1회 서재필 박사 창작품 공모전:신청서 제출 마감/신청 학생 e-book 도서발송

5월

- 107** 5일 NAKS 19대 22차 임원 화상회의(임원 전체)
- 108** 7일 [공문발송] NAKS Corona Virus (Covid-19) Safety Guideline(한희영 사무총장)
- 109** 8일 NAKS 5월 뉴스레터 발송(오정선미 총회장)
- 110** 19일 [공문발송] 2020 NAKS Junior Leadership Award공문(한희영 사무총장)
- 111** 24일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1차 프로젝트 완성(한연성 부회장)
- 112**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추천(한연성 부회장)

6월

- 113** 2일 NAKS 19대 23차 임원 화상회의(임원 전체)
- 114** 3일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4기 16차 화상회의(4기 위원과 위원장)
- 115** 10일 [공문발송] 제38회 정기총회 및 20대 회장단 선거 공문(한희영사무총장)
- 116** 15일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위원회 1차 화상회의(심수목 부회장, 남궁령
웹간사, 위원 4분)
- 117** 28일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2차 프로젝트 완성(한연성 부회장)
- 118** 29일 한국어 수준별 표준평가 및 반 배치고사 위원회 2차 화상회의 (심수목 부회장, 남궁령
웹간사, 위원 4분)
- 119** 30일 K-독도 UCC 공모전 합격자 발표 공고(이상훈 교육간사)
- 120** Online Class Support Team 자료 마감(한희영 사무총장)

제 37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기조강연(폴 김 교수)



▼ 14개 지협협의회 회장단



재미한국
학교의
정체성 교육



▲ 19대 나스 집행부



▲ 천진환 김구 재단 부이사장, 오정선미 총회장, 나스 자문단과 함께



▲ 내외 귀빈들 기념촬영



▲ 백범일지 독후감 수상자들 (왼쪽) ▲ 장기근속교사 수상자들 (오른쪽)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 19대 나스 집행부 (위)
▼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아래)

▼ 학술대회 포스터 공모대회



▶ 나의꿈말하기 대회 수상자들 (상)
한국알리기 기자단 (중)
전우석 변호사와 한국알리기 기자단 (하)

▼ 청소년 역사 문화 리더십 캠프 단체 참석자들



▲ NAKS-ACTFL 교사 인증제 참가자들



▲ 제 5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 NAKS-ACTFL 멘토와 멘티와의 만남(앞줄 중앙 Dr. Bridget Yaden ACTFL 회장)

차세대 희망
차세대 교사



▲ 독도와 동해 특강(시애틀 총영사관 홍승인 부총영사)





교사 집중연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회장단

▲ 제 10차 한국어교사 집중연수회



▲ 연석회의 후 친목도모 웃놀이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3일부터 5일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8회 학술대회 준비 모임

재미한국학교협의회(회장 오정선미)는 3일부터 5일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7월 16일~18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오정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9대 총회장 및 집행부 임원, 미국 내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김현(감사), 임병애, 유재범(동중부 선출이사), 홍태명, 김현(선출이사/감사), 이광호(SAT 한국어 모의고사 전문위원), 손민호 출제 위원장, 고은아, 김한애 출제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관인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오준석 이사장, 이병용 부이사장, 이현경 총무이사,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이선호 재외동포재단주재관, 하형록, 이주향(2020년 학술대회 기금모금 공동대회장) 씨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7월 열릴 제38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한국학교 교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며졌다.

준비모임 첫날인 3일 개회식에는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이선호 재외동포재단주재관, 오준석 이사장이 참석했다.

오정선미 총회장은 “학술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하게 되어 지역협조가 기대되고, 배움이 넘치는 학술대회, 좋은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석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준석 이사장은 “틀이 잡힌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싶고 2세 교육을 잘 하도록 의미 있는 연석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3년 임기를 마치고 3월 귀임을 앞두고 그동안 감사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선호 재외동포재단주재관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차세대 교육에 방향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그 시작이 이번 연석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형록 2020년 학술대회 동중부지역협의회 기금모금 공동대회장은 “한국어,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멋진 한 가족이 연합되는 것과 정을 미국에 전할 수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향 미동북부 한인연합회장 및 공동대회장은 “문화, 역사, 교육의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온 것을 환영하며 나스의 성공과 번영을 바라며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선호 재외동포재단주재관,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의 한국정부 사업 소개시간이 있었다. 또 SAT Subject Test Korean한국어 모의고사를 위해 손민호 출제 위원장과 이광호 모의고사 위원장을 비롯 고은아, 김한애 출제위원이 모여 준비작업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올해의 사업계획안, 집행부 보고, 이사회 보고, 각 지역협의회 사업 발표 및 학술대회 세부 사항 논의가 있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를 마쳤다. 왼쪽부터 손민호 출제위원, 임지현 나스 부회장, 김한애 출제위원, 오정선미 나스 총회장, 정광미 나스 재무, 고은아 출제위원, 한연성 나스 부회장, 이광호 SAT 전문위원, 오준석 나스 이사장, 박상화 워싱턴 교육원장, 이상훈 나스 교육간사, 여승진 나스 홍보간사, 남궁령 나스 웹간사

“SAT II 한국어 준비 잘 하세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마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오정선미)는 3일부터 5일까지 제38회 재미한국학교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는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SAT II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 출제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질 모의고사를 출제했다.

출제는 손민호 출제위원장을 비롯 고은아, 김한애 출제위원 등

이 맡았고, 이광호 SAT전문위원과 임태혁 감수위원의 감수를 거쳐 최종 모의고사 문제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SAT한국어 모의고사는 매년 11월 College Board에서 실시하는 SAT Korean with Listening Subject Test를 준비하는 시험인 동시에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험으로 자리잡

았다.

올해 SAT한국어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3월 20일~2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그동안 SAT한국어 문제들을 엮어 만든 SAT한국어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다. 구입하려면 나스 홈페이지(www.naks.org)를 참조하면 된다.



美동포 고교생들, 대한민국 집중 알리기 활동 나서

송고시간 | 2020-07-13 09:32

“독도 홍보하며 자부심 느끼고, 공립학교에 독일기 알리겠다”
“‘코리아 기모노’ 아닌 ‘한복’ 명칭 미국서 정착시키겠다”



미시간 세종학교 이연우 학생의 독도 알리기 표지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일본의 주장이 억지인지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독도를 공부하면서 독도 자부심과 함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세종학교 11학년 에 재학하는 이연우 학생이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다.
그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독도 이야기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조국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학교 내에서 독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 학생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오정선 미)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학생 기자’로 뽑혀 미국 내 다른 지역 8명 학생과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NAKS에는 미국 내 한국학교 800여 개가 가입해 있다.

독일기, 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

제 2회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하와이 기자 최윤인(Yoon In Choi)
하와이한인사회학교 (Korean Community School of Hawaii)

목차

- 독일기란
 - 독일기의 탄생
 - 독일기가 사용되었던 전철들
 - 독일기가 가진 의미
- 미국에 알려져 있는 독일기
 -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독일기
 - 유명 브랜드의 독일기 사용
 - 그 외 논란이 되었던 독일기 사용
 - 결론
- 개선안
 -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미국 공립학교에 어떻게 알려야 하나?

1. 독일기란



‘독일기=하켄크로이츠’ 홍보한 최윤인 학생
[NAKS 제공]

13일 NAKS가 보낸 활동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 한인사회 학교 10학년인 최윤인 학생은 ‘독일기가 모욕적이거나 불쾌하나’라는 한 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 “전혀 공격적 이거나 불쾌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미국인들에게 독일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

준비를 하면서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들을 살펴봤고,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시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자세히 다룬 교과서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에 중점을 두고 소개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일본이 독일기를 앞세워 저지른 전범의 역사를 미국인들에게 ‘독일기=아시아의 하켄크로이츠’라고 홍보하기로 전략을 짰다.

최 학생은 “미국 사회에 독일기의 실체를 알리려면 기초 교육 시설인 공립학교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10년, 20년, 수십 년 뒤 미국인들이 독일기를 봤을 때 이 깃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며 “공립학교에 알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성균 플로리다 템파통합한국학교 10학년 학생은 프로젝트 기간에 ‘한복 알리기’에 나섰다. 어린 시절 박물관 등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가이드가 ‘코리아 기모노’, ‘차이니스 드레스’라고 안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한복’이라는 명칭을 미국인들에게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코리안 가라테’로, ‘태권도 동아리’를 ‘코리안 가라테 클럽’으로 부르는 미국인들을 계도하는 일에 나선 학생도 있다. 이은서 워싱턴통합한국학교 11학년 학생은 “태권도와 가라테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식어가는 태권도의 열기를 다시 불붙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른 학생들은 ‘한글’,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한국전쟁’, ‘한국 전통 무용’ 등을 주제로 한국 바로 알리기에 동참했다.

6. 귀하께서는 보기중 기호가 된다면 입고 싶은 전통의상이 있으십니까?



복을 알리는 문성균 학생의 프로젝트 내용 중 일부
[NAKS 제공]



Home > 교육,육아 > 교육 정보 > NAKS, 온라인 한국어 수업자료 개발하여 무료 보급에 나섰다!

교육,육아 교육 정보 필라 뉴스

NAKS, 온라인 한국어 수업자료 개발하여 무료 보급에 나섰다!

By Philain - 04/25/2020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바로 이런 수업자료가 필요했어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총회장 오정선 미)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일선 학교 교사들을 돕기 위해 NAKS 온라인 수업 자료팀을 꾸렸다.

지난번에는, NAKS 온라인 수업 가이드 북을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Zoom, Google Classroom 사용법 등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수업자료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학교 교사라면 누구라도 쉽게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PPT로 제작하고 있다.



사진설명: NAKS 온라인 수업자료 팀원들과 임원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 수업 뿐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향후 21세기형 교실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라 하겠다.

현재 미국 내 한국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전 과정(1에서 6까지)에 걸친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단어 공부 학습사이트인 퀴즐렛(Quizlet)에 각 과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만들어서 올려두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다시 만들 필요없이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는 기회와 같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온라인 교육이 21세기형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길 바란다.

샘플로 올린 자료들을 보고 “이런 자료가 우리가 원했던 자료다”, “정말 도움이 된다”,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은 줄어든 것 같다” 등 전 세계에서 보내준 격려의 말에 힘입어 비록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서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매주 한 단원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6월 말까지 모든 과정의 수업자료가 NAKS 웹에 탑재될 예정이며,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NAKS 온라인 수업자료실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수업자료 다운 받기: <https://www.naks.org/jml/naks-online-classes-menu>

한편 NAKS는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언론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NAKS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라인 편집부] 뉴스 제보는 info@philain.com

필라인닷컴 홈페이지 바로 가기 www.philain.com



텍사스, 알칸사, 루지애나,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5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남서부 지역협의회



회장 김은희

2019년도 남서부 사업

1.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2. 우리말 말하기 발표회(나의 꿈) 각 지역대회
3. 한글학교와 현지학교의 융합형 미래학교 포럼
4. 교사 연수 (4개 주요 도시)
5. 한글 창제 576돌 기념 백일장
6. 시가 있는 그림대회
7. 차세대 보조교사 워크숍
8. 우리 전통예술 잔치[민속 한마당]
9. 전통문화 수업 (장거리 도시 및 주에 위치한 학교 위주로 10 개교 지원)

2019년도 한글학교와 현지학교의 융합형 미래학교 포럼

1) 행사 목적:

남서부 지역의 한글/한국학교 관련자 (운영진, 학부모, 이사진)을 대상으로 현지학교와 융합하여 현지 상황과 교육법에 부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학교 운영

2) 행사 진행 방법:

- (ㄱ) 전체 강의 - 교육원, 외부강사
- (ㄴ) 6명씩 팀을 나누어 라운드 테이블 브레인스토밍/토의
- (ㄷ) 팀별 팀장 발표, 자원자 자유 발표 및 발언과 질의 응답
- (ㄹ) 발표자 상품과 증정, 참가자 기념품 증정

3) 행사 효과 및 전반적인 평가:

- 현지학교와 한글학교 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
- 현재 한글/한국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과 보완책을 토의
-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으로 혁신과 변화에 동참하는 학교 운영 방향 파악

교사 연수회 4곳에서 개최

일정: 2019년 9월 19일 ~ 2019년 10월 16일

장소: 달라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뉴올리언즈

참가인원: 총 430명

1) 행사 목적:

- (ㄱ) 효율적인 교수법 제시로 인한 최고의 교수 효과 창출 및 교사 역량 강화
- (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교실 운영 노하우 제공



▲ 달라스, 휴스턴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위)
샌안토니오, 루이지애나 한국학교 교사 연수회(아래)

(ㄱ) 신임교사의 한글학교 현실 파악 및 연수 목적

(ㄷ) 각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발전을 꾀함

(ㄹ) 5년 근속교사 표창으로 주말 한글학교 교사의 헌신과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함

2) 행사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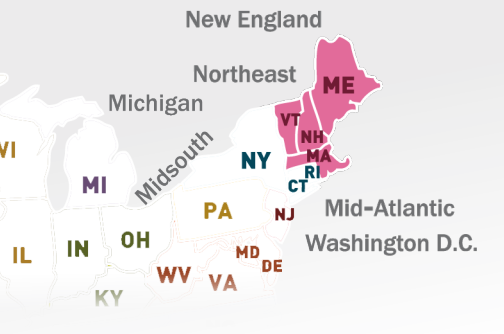
- (ㄱ) 외부 강사 강의
- (ㄴ) 지역 강사 강의
- (ㄷ) 5년 장기근속 교사 표창 (표창패, 기념품)
- (ㄹ) 모범학교 및 우수교사 사례 발표와 질의 응답
- (ㄷ) 라운드테이블: 학급 수준별 교사 토의
- (ㄹ) 1년간 수고한 교사들에게 사은회를 베풀어 만찬, 공연, 선물, 기념품 증정

3) 행사 효과 및 전반적인 평가

- (ㄱ) 효율적인 교수법 제시로 인한 최고의 교수 효과 창출 및 교사 역량 강화
- (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교실 운영 노하우 제공
- (ㄷ) 신임교사의 한글학교 현실 파악 및 연수 목적
- (ㄹ) 각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발전을 꾀함
- (ㄹ) 5년 근속교사 표창으로 주말 한글학교 교사의 헌신과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함

2019 역사문화캠프 @ 센트럴 지역 (4개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회장 남 일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회장단

1. 회장: 남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2. 부회장/재무: 강상철(보스톤 한국학교 교장)
3. 부회장/교육: 김영순(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고급과정 리더)
4. 총무: 김소희(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중급과정 리더)
5. 교육간사: 김유리(보스톤 중앙한국학교 교장)
6. 홍보간사: 최연식(퀸지 한국학교 교장)
7. IT간사: 채희정(성요한 한국학교)
8. 행사 간사: 김성희(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9. 행사 간사: 박현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 웹간사: 이지훈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2020년도 주요 사업 및 개최 장소

1. '20학년도 교사 사은회 & 봄 교사연수회: 3월 14일(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2.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글짓기대회: 5월 2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사생대회: 5월 23일(Hopkinton state park)
4. 2019-'20회기년도 정기 이사회 및 총회: 6월 13일(보스턴 한국학교)
5. 2020년도 가을 정기 교사연수회: 9월 5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6. 2020-'21회기년도 교장단 회의: 9월 5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행사
01

제18회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합창제

- 1) 참가자: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지역 단체장 등 3백명 이상
- 2) 세부내용:
 - 행사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7일 보스톤 한인교회 본당 및 교육관
 - 매년 12월 첫 주에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회원교 학생들이 창작동요와 전래동요 및 K-POP 발표를 통해 각 학교를 홍보하며 선의의 경연 행사를 갖고 있음
 - 이번 18회에는 10개교에서 14개 중창 및 합창팀이 참가하였음
 - 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지구본을 참가상으로 후원하며 적극 지원했음

행사
02

2019~'20학년도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지역 예선대회 개최

- 1) 참가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학생 및 일반 참가자
- 2) 세부내용:
 - 행사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6일 북부보스턴한국학교 & 성요한 한국학교
 - 매년 4~5월에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회원교 학생들이 각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한글솜씨를 글로 써 보고 발표하며 학교 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음
 - 지난 2019년도에는 1백 명이 PK~12학년까지 나누어 참가하였음
 - 각 학년별 14명의 대상 수상자들은 본인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짐
 - 사진) 보스턴총영사상: 최유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NAKS-NE지역 협의회장상: 이지훈(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같은 날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지역대표 선발대회도 열림



제18회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합창단 대회 모습▶

▼사진) 좌/보스턴총영사상: 최유민(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우/NAKS-NE지역 협의회장상: 이지훈(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5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동남부 지역협의회



회장 선우인호

1991년 창립 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본 협의회는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을 목표로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하여 교사연수회, 교장세미나, 한글 올림피아드, SAT 한국어 모의고사, 동요 부르기 대회 등의 다양한 자체 행사와 SAT 한국어모의고사, 나의 꿈 말하기대회, 글짓기대회 등의 협력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다큐멘터리 ‘헤로니모’ 동남부 시사회 개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정체성”

한인 차세대 전후석 변호사의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Heronimo)”의 미주 동남부 첫 시사회가 지난해 10월 27일 돌루스 스튜디오 무비그릴에서 열려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회장 선우인호)와 KAC(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회(회장 엄윤경), 리제네레이션(공동대표 김종대 최자현)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300명의 관객들이 참석해 함께 감동을 나눴다.

전후석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Diaspora)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며 “동남부 지역에서는 첫 시사회인데 헤로니모 상영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모였다”며 미소를 지었다. 시사회장 곳곳에는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부모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러닝타임 90분이 넘는 영화에 끝까지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어머니는 영화 상영 중 눈물을 흘리다 “엄마, 왜 울어?”라는 질문에 아이의 손을 꼭 잡기도 했다. 선우인호 회장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이 영화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한국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느꼈을 것”이라며 행사를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인 전 감독이 쿠바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주소와 정체성 문제를 다룬 영화로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감독은 영화 상영이 끝난 뒤 엄윤경 회장 사회로 관객들과 Q&A 세션을 갖고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과 제작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장에서 전후석 감독 후원을 위한 모금행사도 펼쳤다.



◀전후석 감독과의 Q&A
시사회장 모습 ▶



한국학교 교사 사은의 밤

제2회 한국학교 교사 사은의 밤 행사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내 KCPC 연합한국학교에서 2019년 12월 14일에 열렸다. 한해동안 한글 교육을 위해 수고한 한국학교 교사들과 2019년 새로 가입한 지적 장애우 대상 ‘꿈길 한글학교’ 교사 등 모두 150여 명을 모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사 만찬과 새내기 교사 및 새내기 학교에 대한 시상, 선물전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원장 조재익)과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회장 김형률)가 후원했다.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

제2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대회가 2019년 10월 5일, 오전 10시 애틀랜타한국학교에서 개최됐다. 선우인호 회장은 “협의회와 한국교육원이 함께 개최하는 한글 글짓기 대회는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한글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학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모두 227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날 열린 글짓기 대회는 초급1 (1,2,3학년), 초급2 (4,5학년), 중급 (6,7,8학년)과 고급 (9,10,11,12학년)으로 나누어 각 그룹당 4개의 시제가 주어져 이 가운데 하나를 당일 행사장에서 추첨해 사용했다. 시제는 ◇초급=나의 영웅은? ◇중급=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고급=10년 후의 나의 모습 등이다. 이날 장원(총영사상)은 유하늘(애틀랜타 한국학교)학생이 차지했다.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동북부 지역협의회



회장 김혜성

2020년 교장단 연수 - 한국학교 교육행정가 역량강화

한국학교 교육행정가 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교장단 연수가 지난 1월 10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각 학교 교장 및 교감, 실무 대표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용학 뉴욕한국교육원장의 ‘전략적 조직운동을 위한 리더십’강의와 이선호 재외동포재단 영사의 ‘2019 각 학교 운영 집행보고서 장단점 및 2020년 학교 운영비 신청 가이드’에 대한 안내로 교육행정가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학교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각 학교 운영 사례, 특별한 수업 방법과 교과 과정 등을 나누며 효과적인 학교 운영 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고, 학교 간의 여러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협의회 행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며 학교와 협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 각 학교 운영 사례 발표



▲ 한국학교 교육행정가 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교장단연수 전체 단체 사진



▲ 학교 운영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각 학교 교장, 실무대표자들

차세대 한인 정체성 워크숍 및 봉사상 수여식



▲ 참가 보조교사들이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대표적인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 조별 연구, 토론하고 있다.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보조교사들 ▶



▲ 동북부협의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워크숍 및 봉사상 수여식 단체 사진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정체성 연구원 8명 ▶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한국학교에서 자원 봉사하는 보조교사를 위한 차세대 한인 정체성 워크숍 및 봉사상 수여식 행사가 1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2019년 10월 5일 열렸다. 기조연설자 전후석 변호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이란 주제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 확립시켜 주었고, 참가학생들은 김종림, 새미 리, 안창호, 안수잔, 백남준, 송호연, 김영옥 등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코리안 아메리칸 7인에 대해 조별 연구, 토론, 발표하며 유대감을 가졌다. 또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정체성 연구원 8명은 선정한 코리안 아메리칸 1인에 대한 심화 연구 자료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며 차세대 교사로서 성장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제20회 한영 영한 번역대회



한글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리는 제20회 한영 영한 번역대회가 지난 11월 16일 2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나뉘어 동시에 열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뉴욕한국교육원 지원 하에 열리고 있으며, 대상으로 대한민국 부총리상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 된다. 한영 영한 번역대회는 처음 번역을 접하는 셋별 부분 3학년 학생부터 번역의 완성미를 자랑하는 고급부 12학년 학생까지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들 실력이 나날이 높아져 한국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노고가 잘 반영되고 있는 대회라고 평가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남부뉴저지, 델라웨어 3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동중부 지역협의회



회장 이경애

제7회 필라델피아 '미주 한인의 날' 태극기 게양식과 기념식 참가

제7회 필라델피아 '미주 한인의 날' 태극기 게양식과 기념행사가 1월 13일 (월) 오전 10시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동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기념행사는 지역 한인 언론 뿐 아니라 현지 TV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하는 등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1부 국기 게양식에서는 태극기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미동중부 협의회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애국가 및 미국 국가를 불렀다. 데이빗 오 시의원은 그동안 미주 한인 2세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에 힘써 온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 협의회 이경애 회장에게 결의안을 증정하였다. 한편 2부 기념식에서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에 이어 축하공연으로 씨드 한국 무용 선교단이 모듬북 공연을 했으며, 한국학교 학생들이 '연날리기' 동요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데이빗 오 시의원의 폐회인사에 이어 필라델피아 시에서 준비한 한식점심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제18회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 교사사은회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 협의회 (회장 이경애)는 12월 15일 (일) 오후 6시에 윌리엄 펜인(블루벨에 위치)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며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의 "교사 사은회 행사"를 개최했다. 사은회는 김정숙 부회장의 사회로 1부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례와 환영사, 공로패 증정 및 모범교사 시상, 내빈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경애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와 사랑을 전하였고 지난 4년간 한인회 회장으로 수고한 장병기 한인회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1부 행사에서 10년, 15년, 20년을 근속한 교사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했으며, 17명의 모범교사에게 동중부지역에서 수여하는 모범교사상과 선물뿐 아니라 David Oh의원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해 주었다. 특별히 동북부한인회연합회 (이주향회장)에서는 협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온 이경애 회장에게 우수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저녁식사 중에는 한해를 마무리 하며 협의회 주요 행사들을 편집한 영상을 보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어 2부 축하공연에는 2017년 광복절 대축제 노래자랑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청년가수 김진석씨와 조아다씨가 멋진 공연을 통해

◀포코노 산자락에서 소고춤과 케이팝이 만났다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회장 이경애,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포코노 소재 마운트 길리엇 캠프장에서 한국문화 여름캠프 '한국의 소리'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가 관할하는 필라델피아 및 남부뉴저지지역 한국학교 학생 33명을 비롯해 비회원교, 자원봉사자, 강사 등 총 50명이 참가했다.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이춘승 단장이 이끄는 뉴욕취타대를 초빙해 모듬북, 태평소, 취타대의 세 마당과, 한국에서 유튜브 한국무용 강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남화연 무용단의 남화연 단장을 초빙하여 BTS 아리랑 음악에 맞춘 소고춤 마당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의 캠프 기간 동안 15시간의 강도 높은 한국 전통 문화예술을 연마했다. 또한, 워터파크, 캠프파이어, 취타대 행진을 통해 미주 차세대 한인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교사들에게 즐겁고 감동 시간을 선사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3부 행사에서는 조수진 총무와 김나진 편집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품과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재미와 감동을 두배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은회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순서에 베스트 드레서상을 남자 1명과 여자 2명에게 시상하였고 무대위에서 런웨이를 하며 참석한 모든 이에게 즐거운 분위기를 선사했다. 또한 작년과 같이 이번에도 이경애 회장이 직접 준비한 경품 추첨에 3명의 교사들이 당첨되었다.

[장기 근속교사 명단]

김신영(10), 김정숙(10), 한민경(10) 황수희(10), 박주현(10), 염혜정(10), 박영은(10), 조수진(10), 김진숙(11), 이경호(12), 설인숙(12), 홍혜경(14), 이지숙(17), 임병애(18), 김신희(19), 고수지(21), 김인숙(21), 이경애(23), 김정자(24), 오정선미(29), 김정미(29), 심수목(29)

[모범교사 명단]

김지혜(기쁨의교회), 박경현(기쁨의교회), 권중현(남동), 박효정(남동), 박정화(다솜), 델라웨어(김혜경), 최인애(몽고메리), 염혜정(벅스카운티), 김신영(양의문), 한정혜(임마누엘), 김현희(연합), 홍경숙(연합), 라경순(영생), 김정자(트렌튼), 정안나(한인천주교), 이현진(한인천주교), 김혜영(한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보이는 공연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 버몬트 주 소재 푸르미한국문화한국 학교에서 6시간을 달려 온 세 명의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소고춤 마당을 진행한 남화연 단장은 "아름다운 한국의 춤사위가 한인2세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을 생각하니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국무용 전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이경애 회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각 참가교에 작은 공연 팀들이 구성되어 기쁘다. 캠프의 결과로 구성된 공연 팀들은 필라델피아, 뉴저지, 델라웨어, 버몬트 등 각 커뮤니티의 추석대잔치, 코리안 퍼레이드, 코리안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봉사를 할 예정이며, 한인 학생들이 한국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지역협의회



회장 김선미

미시간, 오하이오 2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제12회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

참가대상: 미시간 지역 한국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사회
내용:

- 주제 강연 및 토의
강사- 손수정/영화 제작자, 작가, 영화배우
바람직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성장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
- 미시간 협의회 이야기 대회
- 각 학교 숨씨 자랑-꽃바구춤과 부채춤, K-Pop, 동요부르기, 피리불기
- 전통 민속 놀이 체험-비석놀이, 딱지 치기, 공기놀이, 투호놀이 등
- 한국의 역사, 문화 탐구-역사, 문화 일일캠프
1) 주제: 3·1운동
2) 진행: 4단계로 나누어 학년과 나이로 분반 학습
(이해와 체험활동으로 구성)



www.naks.org

6.행사 결과

250여명의 학생과 200명 정도의 학부모 그리고 약 50여명의 지역 한국학교 교사와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영화배우, 작가, 디렉터로 활동 중인 주제강사를 통해 미래의 한국후세들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고 역사, 문화 주제로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의 정신을 새기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민족 정신을 키우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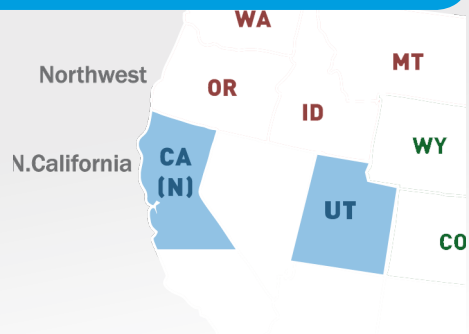
▲ 주제 강연에는 손수정(작가, 배우, 영화 제작자)씨가 초청되었다.



▲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부채춤'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북부 캘리포니아와 유타 2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북가주 지역협의회



회장 황희연

북가주 협의회는 2019년 제 20대 황희연 회장의 임기가 <이 지역에서 차세대 교육의 길을 먼저 만들며 걸어오신 전회장님들의 뜻을 잇고, 현재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교사들과 행복한 차세대 교육을 위해 고민하겠고, 모든 학교 교장 교사들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리더십이 모아져 하나가 되어지길 소망한다>는 1월 신년 하례식 인사로 시작되었다.협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1) 교사를 위한 사업 :
봄 가을 연수 (각 1회), 신임교사 양성연수(1회)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지역 별 1회)
- 2) 교장 및 운영자를 위한 사업 :
교장 워크숍 (1회)
- 3) 학생을 위한 사업 :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2월)
구연동화(격년 4월)
나의 꿈 말하기(격년 4월)
글짓기 그림 그리기 역사 인물프로젝트 대회 (5월)

올해 제 3차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은 “Healthy Me, Healthy Community” 주제로 강사인 Matthew Lea 박사님은 “워크숍을 통해 내가 누구 인지 알고, 나의 상처는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통해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 나의 상처는 치료해 주고 나의 장점은 극대화 시키며 나의 단점은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건강한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Korean-American 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워크숍에 참가한 이다현(트라이밸리 한국학교 보조교사)은 “힘든 사춘기를 보내는 시기에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때 어른들은 “다 그런거야”하며 외면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막막한 길을 헤쳐 나갈 수 있게끔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고, 이 강연을 계기로

저는 나를 이해하고 남을 공감할 줄 아는 좋은 어른으로 가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정준호(모통이돌 한국학교 보조교사)는 집/가족원/가족들과 하고싶은 활동/나무를 그리는 심리테스트 활동을 하며 참여자들의 심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참여자들이 그린 그림의 색깔이나 모양에 그들의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고 그들이 자기자신을 그림으로 곧 표현하는 것을 지켜보며 흥미를 느꼈고, 나를 포함한 참여자 모두에게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월 봄 연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박준용 총영사를 강사로 SF 이민과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민 역사, 이민사의 맥이 이어져 민족적 자긍심 강화와 한글 교육에 대한 중요성, 한국어 학교가 프란시스코에서 1920년에 처음 만들어졌음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4월 구연 동화 대회에서는 유타지역의 먼거리 학생이 동영상으로 처음 참여하기도 했다.



5월에는 제26회 백일장, 제19회 그림 그리기 및 장영실 우당 이회영 프로젝트 대회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되었고, 대회 후에는 사물놀이 팀이 길잡이가 되어 걷기대회가 있었다.

49

NAKS

지역협의회

소식

북가주



10월 교장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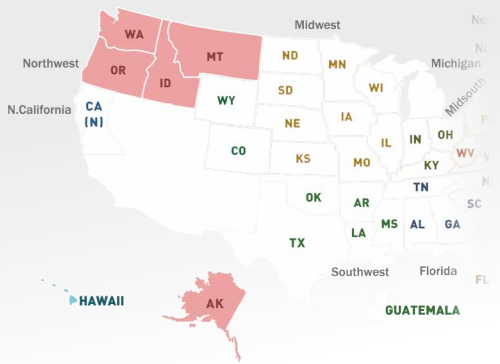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장으로서는 자긍심 갖기, 교장으로서는 알아야 할 정보, 학교 상생하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강사는 전문직을 가진 교장과 학교운영 경험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양하게 발표하고 학교 상생하기에서는 각 학교의 교수 방법 소개와 웹툰로 한국어 수업 시범(손민호 교사)을 함께 하며 시대와 눈 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배웠고, 국제한국어 교육재단을 통한 교과서 신청 방법 및 교과서 내용 미리보기와 협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 응답을 통해 풀어갔다.

12월 사은의 밤 및 한국문화 입체 연수



▲ 웹툰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





워싱턴, 몬태나, 아이다호, 오레곤, 알래스카 5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서북미 지역협의회



회장 박수지

5개주(워싱턴, 몬태나, 아이다호, 오레곤, 알래스카)로 형성된 서북미 지역협의회는 해마다 7~8개의 행사가 열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학력 어휘 경시대회, 합창대회, 학예경연대회로 이 사업은 한국학교 등록학생들로만 참가하는 실력겨루기 행사이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학력 어휘 경시대회 3월 14일

3월 중순에 열리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학력 어휘 경시대회는 같은 날 열리며 말하기대회는 유치부~4학년, 5학년~8학년, 9학년~12학년으로 나누어 학년의 격차를 줄이고 저학년 2개 부문 최우수상은 각각 협의회 회장상과 총회장상으로 나가고 대학진학을 앞둔 고학년에 대상은 주지사상으로 하여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력 어휘 경시대회는 오래도록 해 오던 학력경시와 받아쓰기를 2020년부터 하나로 묶은 형식에 시험이며 학년별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주로 다룬 어휘경시대회이다.

▼ 학력 경시 대회 시험장 모습



www.naks.org



합창대회 및 학력어휘경시 시상식

5월 2일

5월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각 학교마다 준비한 동요나 민요중 한국을 발표하는데 이 행사는 아이들이 무대에서의 담대함과 여러학교들의 발표곡을 비교하며 선의에 경쟁을 하며 심사중엔 아리랑 힙합댄스의 기회도 주어진다.

◀ 제 26회 합창대회 대상 팀 사진

▼ 제 26회 합창대회 사진



학예경연대회 6월 6일

6월 첫주에 모든 한글학교 종강과 함께 그림그리기, 글짓기, 운동회로 야외에서 시애틀의 황금같은 날씨를 맘껏 즐기며 각자 실력을 뽐내본다. 특히 운동회에선 부모들과 함께 팀이되서 협동정신, 인내, 양보 등을 배우며 여름종강을 마무리한다. 이어서 교사들을 위한 학술대회와 서북미지역에서주체하는 교사연수회가 있고 같은날 정기총회를 겸하며 연말엔 교육기금모금의 밤을 교사사은회도 함께 하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위) 학예 미술대회 ▲

(아래) 학예 운동회 ▶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4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워싱턴 지역협의회



회장 김명희

35주년 기념 협의회 회보 발간

(35인 설문/ 학부모 및 차세대 교사와의 간담회)

1984년에 발족된 이래 35주년을 맞이하는 워싱턴지역 협의회가 기념 회보를 발간함으로써 그간의 족적을 되살펴보며 아울러 워싱턴지역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문을 통해 지역유지 35인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학부모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국학교의 현위치 및 미래 주역들의 양성소가 되기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편 미국공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1.5세대 및 2세대 한국어 교사를 모시고 한국학교와의 경험담과 미국공립학교 교육체계와 한국학교 교육체계와의 비교 및 한국학교가 도입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그들의 의견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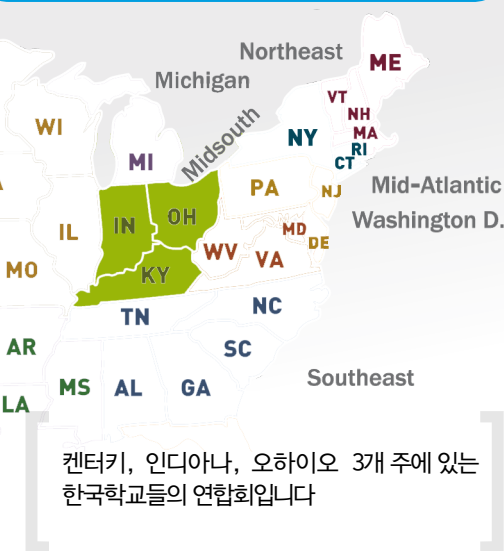


지역 한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한글날 경축행사

(“MD주 한글날 제정”을 위한 법안상정준비 동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를 미 주류사회에 전파하고자 지역 한인단체인 아리랑 USA 공동체와 더불어 한글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아리랑 공동체 주관 하에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와 몇 단체들이 공동 준비위원이 되어 MD 주 한글날 제정을 위해 법안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상정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기념일 제정이 아니라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정된 한글날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각 학교와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서명 운동 및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고 김명숙 회장님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중남부협의회 회장님으로 한국학교 교육을 위해 봉사, 헌신하셨습니다."

중남부 지역협의회



회장대리 **구교성**

2019년 제12차 중남부 학생축제/학부모 교육

제12차 중남부 학생축제가 지난 2019년 4월 27일 콜럼버스 과학박물관(COSI)에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켄터키, 인디아나, 오하이오에서 200 여명의 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생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구연동화 대회, 사생대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동안 학부모님들은 시카고에서 오신 천선화 부원장과 더불어 학부모 교육강의를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엔 부모님, 가족, 학교 친구들과 함께 산업 과학박물관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폐회식에서는 모범학생 표창 및 각종 시상이 있었고,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도 있었고,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는 참가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제9회 중남부 청소년 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2019년 제9회 중남부 청소년 역사문화 리더십 캠프가 지난 6월 2일~4일 사이 켄터키 렉싱턴 한국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한인 2세로, 현재 켄터키 주정부에서 교육부 일을 하시는 Dr.Chi 가 주제강사로 오셔서 “장래 지도자로서의 한인 2세들의 정체성과 소통”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산악행군, 야외수영, 캠프파이어, 애국가 바로 부르기, 역사문제 풀이, 연 만들기 프로젝트, 평화통일 특강 등이 있었고, 매년 이 캠프를 참여해오다 대학생이 된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캠프를 마칠 때는 모두 아쉬워하며 “캠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제20차 중남부 교사 연수회

2019년 제20차 중남부 교사 연수회가 2019년 9월 28일(토) 콜럼버스한인교회 한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오정선미 현 낙스총회장이 주제 강사로 오셔서 “꿈을 향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점심 후, 중남부 고유의 교사가요 대회 때에는 낙스 총회장의 짝짝 축하공연도 있었습니다. 교사가요 대회 결과는 상어송을(Shark Song) 한글학교에 맞게 재미있게 개사하여 부른 렉싱턴 한글학교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오후 강의와 분반토의로 유익한 시간을 가진 후 폐회식에서는 모범교사 표창과 경품 추첨도 있었습니다.

제2차 차세대 교사 양성 Workshop 및 학부모 교육

2019년 제2차 차세대 교사 양성 Workshop이 지난 10월 26일 인디애나폴리스 샷별 한국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최연소로 인디애나주 국회의원이 되는 크리스 정이 강사로 오셔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업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할지, 미국에서 한인들의 역할 등의 여러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준비하였는지는”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국학교 관계자, 성인들이 참석해서 SAT2 한국어 시험, 지역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었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정에게 연락을 주면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제6차 재미 한국학교 중남부 협의회 문화/역사 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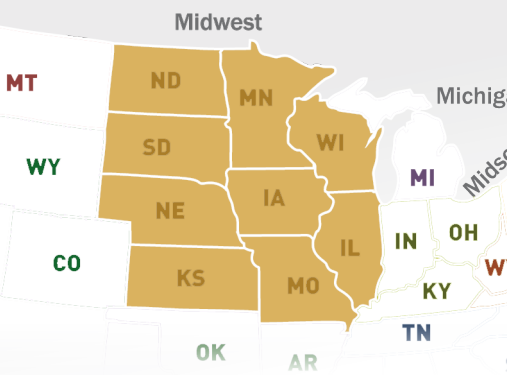
2019년 제6차 재미 한국학교 중남부 협의회 문화/역사 퀴즈대회가 지난 11월 9일 오후 하이오 마이애미벨리 한국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간단한 빵과 음료수, 과일 등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든든히 아침을 먹으며 대회를 준비하였고, 대회 시작 전에는 다함께 역사교육/속담 문제 복습을 했습니다. 퀴즈대회 때는 각 그룹별로 자리를 배정받고 공정한 대회를 위해서 부모/가족들은 모두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전 한국 문화/역사 출제 문제에 한국 속담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정답을 틀렸을 때는 실망을 하고,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대회를 마친후 바로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호 중남부 협회지를 10월에 발간하여 문화/역사 퀴즈대회 때에 배부하고, 각 학교에 배송하였습니다.

▶ 2020년 중남부 계획

- 1) 제13차 중남부학생축제
일시: 2020년 4월 25일 장소:인디아나 폴리스 예정
- 2) 2020 중남부 청소년 캠프
일시: 6월 8일(일)~6월 10일(수) 장소: 루이빌 캠프장
- 3) 2020년 입양 행사
일시: 7월 25일(토) 장소: 인디아나 폴리스 섯별한국학교
- 4) 제10차 중남부 협의회 교사 연수
일시: 2020년 9월 26일 (토) 장소:능력한글 예능교실 예정
- 5) 제3차 중남부지역협의회 차세대 교사 workshop
일시: 6월 7일
- 6) 제7차 문화/역사 퀴즈대회
일시: 11월14일(토) 장소: 루이빌





노스/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위스콘신, 일리노이 9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중서부 지역협의회



회장 이미희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가을학기 연수 개최

-학생 참여형 수업 지향 한국어 수업의 실제 제시-

2019~2020학년도 제64차 가을학기 교사연수 및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2월과 8월, 개강을 앞두고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봄, 가을 교사연수회를 주관하였다. 2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오전 전체 강의, 오후 분반강의로 나눠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전체강의에는 천선화 한국교육원 부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는 한국어 수업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 분반 강의에는 유아/유치반 '놀이를 통한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초급 '스터디 코리안과 Quizlet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중급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한국어 교수법' 고급 Teaching the whole child (Growth Mindset) 사고력 발달 수업이 이뤄졌으며, 이어 특별 활동반 전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분반 강의 세션 II에는 시카고한국전통예술원의 정우성 상주 예술가가 강사로 나와 단소를 통한 전통음악 교육을, '나도 미술 선생이 될 수 있다', '서예/한국화 바로 알기', '유물 만들기를 통해 배우는 재미난 한국사' 강연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이미희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장은 "이번 연수는 관념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준비했다"며 "아울러 차세대에 한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교사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번 가을학기 교사 연수에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여느 때보다 높아 큰 보람을 느낀다.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을 꽃 피운 왕 정조' 문화 역사 체험 행사

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조선을 꽃 피운 왕 정조' 문화 역사 체험 행사 및 글짓기 대회 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 소속 12개의 학교에서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문화체험 행사에서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풍속화로 살펴보는 서민의 삶' 5~6학년을 대상으로 '8일간의 화성 원행 따라가기', 7-8학년을 대상으로 '수원화성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별 수업을 통해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풍속화로 서민의 삶을 배우고, 활동으로는 민화 족자와 거중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선시대 문화 부흥을 꽃 피운 왕 정조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이 행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박준성 한국교육원장은 "참석한 많은 학생들에게 200여년 전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총 70명이 참가한 글짓기대회에서는 '가을',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등 다양한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한인 청소년 문화 예술제

- 꿈을 딛고 날아오르다

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 '청소년 문화 예술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장학금 수여식'

청소년 문화 예술제에 총 10개 300여명의 한국학교 학생들이 북, K-POP 댄스, 사물놀이, 무용, 태권도 등을 선보였고 불타국악합주단과 정우성 단소 연주가의 특별 공연도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인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함으로써 올바른 정체성을 함양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재능 및 소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인 차세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그 꿈을 실천하는 기회와 각 학교에서 배움을 공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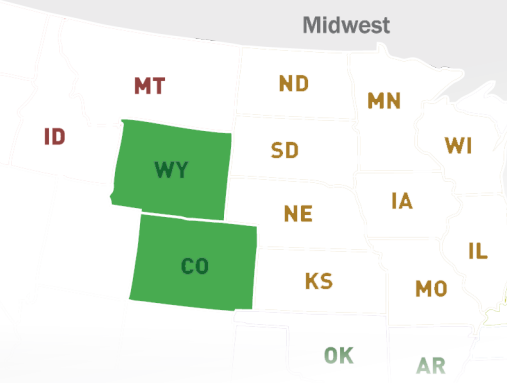


차세대 교사 워크숍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하여 현재 한인 2세, 3세 학생들을 이해하고 차세대 교사에게 소통의 기회 제공하였다. 현직 교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차세대 교사간의 나눔의 기회가 되며 차세대 교사가 될 학생들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학교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차세대 선생님들에게 한국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법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하여 차세대 한국학교 교사로 양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조 교사가 알아야 할 것들"과 "The Power of WHY" 강의로 진행되었다.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콜로라도, 와이오밍 2개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봄학기 및 가을학기 교사연수회

봄학기 교사연수회가 2019년 3월 2일, 새문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손민호 강사를 초청하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수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강의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가을학기 교사연수회는 2019년 9월 7일, 김선미강사의 “한국학교에서의 역사, 문화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교실에서 좀 더 쉽고 흥미롭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의미있는 강의였다.이 시간들을 통해 다양한 수업 방법과 교재, 교구, 유용한 학습 웹사이트 등 실제적으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고,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2019년 4월 25일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대회’가 성로렌스 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내가 다니는 한국학교’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계절’로 정해졌다. 이 주제 아래 저학년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로, 고학년 학생들은 글짓기로 자신들의 솜씨를 한껏 발휘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글짓기와 그림이라는 친근한 활동으로 더욱 흥미롭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의 꿈 말하기대회

‘제1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가 2019년4월 27일 새문교회에서 열렸다. 크게 저학년(1~4학년)부문과 고학년(5~12학년)부문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소품과 의상을 준비하는 등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말로 무대 위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www.naks.org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회장 유미순



한국문화 및 역사체험장

가을학기 행사로 ‘한국문화 및 역사 체험장’을 개최했다. 콜로라도 지역 내 한국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2019년 10월 5일 제자한국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교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부모들이 모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했다. 협의회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떡 메치기, 전통악기체험, 한복입고 인증샷찍기, 여러가지 민속놀이, 사군자 병풍만들기, 훈민정음 해례본 탁본 찍기, 달고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준비했다. 유아, 유치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태극기를 직접 그리면서 태극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한국학교학생들 모두 신나게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외국인 부모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이라서 한국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장연수회 및 교사사은회

2019년 12월 14일 새문한국학교에서 ‘교장연수회 및 교사사은회’가 열렸다. 교장연수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교 관리 노하우를 나누는 등 교장들의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이어 치뤄진 교사 사은회에서는 우수교사 표창, 친목도모게임 등을 통하여 이 지역 한국학교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며, 교사들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로라도 한국학교 학예발표회

‘재미한국학교 학예발표회’가 12월 7일 새문한국학교에서 열렸다. 각 학교에서는 꼭두각시춤, 뮤지컬, 케이팝댄스, 독도플래쉬몹 등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번 학예회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역협의회 한국학교 학생들이 일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보여주면서 서로 하나되고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회장 김진희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플로리다 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주최 제 30 차 한글날 글짓기 대회는 총 10개 학교가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날짜 고정: 매년 10월 9일 전후 학교수업 중)에 참여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총 참가 인원수 225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한글날의 의미와 한글의 우수성과 창의성, 독창성을 경험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하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유치부 부터 고등부까지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금, 은, 동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글쓰기를 통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기록하고 담아낼 수 있도록 매년 수상 작품집을 제작하고 있다.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교사 연수회

플로리다 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2차례, 1월 3째주 토요일과 8월 3째주 토요일에 교사 연수회 날짜를 고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2019년 1 월 19일 (49차), 2019년 8 월 17일 (50차) 장소는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섭외한다. 49차- 탬파통합 한국학교, 새빛교회 교육관 및 본당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50차 - 올랜도 한국학교, 올랜도 비전교회 (16796 E DAVENPORT RD. WINTER GARDEN, FL 34787)에서 개최 하였으며 플로리다 전 지역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및 실질적인 한국어 교수법 습득, 수준별 교수법 제시, 학교별 상호 네트워크 확립 및 유용한 정보 교환, 더불어 차세대를 위한 한국 문화 계승 및 한글의 확장 방법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2020년 1월 18일에는 제51차 교사 수련회가 탬파통합한국학교에서 개최된다.





하와이 주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회입니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회장 손애자

573돌 한글날 기념 제 5회 한마당 글잔치
[동시개최] 제 1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회: 2019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심사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3시 30분 (하와이 한인회 교육관
(1649 Kalakaua Ave. #207 Honolulu, HI 96826)
심사위원: 성백군(시인, 원로목사), 강민경(시인), 최철호(주호놀룰루 교육담당
영사), 김원각: 전 월남참전용사회 회장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 심사)
시상식: 2019 정기총회 및 제2회 사은의 밤(12월 16일)에서 시상식 개최함.

수상 학생 명단

제4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 [1등] 김대원(6학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제목: 나의 꿈은 골프선수
- [2등] 박루아(5학년, 에덴 한글학교)
제목: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
- [3등] 바다 밀러(3학년, 좋은 씨앗 한글학교)
제목: 나의 꿈은 두가지
- [장려상] 도아 밀러(1학년, 좋은 씨앗 한글학교)
제목: 나의 꿈은 세가지

동시낭송 대회(초·중·고급)

- 1)초급(16명)
[1등] 조미래(중앙 한글예술학교)
[2등] 송리호(오사랑 한국학교)
[3등] 인하원(에덴 한글학교)
[장려상] 강지은, 강세은, 김준서, 김현서, 전하람(로고스 명품 한글학교), 김선우(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김솔희(에덴 한글학교), 사랑 로메로(무궁화 한국학교), 이연아, 이연우(중앙 한글예술학교), 이은비, 지노 빌리니(오사랑 한국학교) 유지안(감람 한글학교)
- 2) 중급(6명)
[1등] 이수연(오사랑 한국학교)
[2등] 이민훈(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3등] 원로하(오사랑 한국학교)
[장려상] 야노 지수(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양보경(에덴 한글학교), 이도윤(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 3) 고급(4명)
[1등] 이도현(오사랑 한국학교)
[2등] 박예은(중앙 한글예술학교)
[3등] 하늘 수에히사(중앙 한글예술학교)
[장려상] 정진아(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 대회

- 1) 우수상(10명)
강지은, 노이안(로고스 명품 한글학교), 박예은, 노 타티아나(중앙 한글예술학교), Mikayla(무궁화 한국학교), 장은서(좋은 씨앗 한글학교), 엄예준(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김솔희, 인하원, 엘라 청(에덴 한글학교)
- 2) 단체상(11개 참가 학교)
감람 한글학교, 로고스 명품한글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사모아 한글학교, 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에덴 한글학교, 오사랑 한국학교, 중앙 한글예술학교, 좋은 씨앗 한글학교, 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글짓기 대회

- [장 원] 김영서(10학년, 사모아 한글학교)
제목: 중요한 밑거름
- [최우수상] 이도현(11학년, 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선물
- [우수상] 박 레이첼(4학년, 사모아 한글학교)
제목: 나의 꿈은?
- [장려상] 김민준(9학년, 사모아 한글학교)
제목: 나의 한국 방문 이야기
- [장려상] 강지은(4학년, 로고스 명품한글학교)
제목: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받아쓰기 대회(날말/ 문장)

- 1) 날말 기초 1등(25명)
김죽복, 김태양, 박소영, 홍미르(오사랑 한국학교), 윤영광(중앙 한글예술학교), 신하림(무궁화 한국학교), 김진, 강세은, 이에쉬턴, 전하람(로고스 명품한글학교), 유지안, 류지완(감람 한글학교), 박루나, 엘라 청(에덴 한글학교), 크리스티아나, 단비 하시모토, 이사벨라(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이현서, 김태민, 은서, 도아(좋은 씨앗 한글학교), 홍도현(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예군, 데니카(하와이 한인사회학교), 박미셸(사모아 한글학교)
- 2) 날말 기초 2등(12명)
테디 퍼거슨, 오토, 유태영(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정우(무궁화 한국학교), 김은유,김진우(중앙 한글예술학교), 김현서(로고스 명품한글학교), 최어진(오사랑 한국학교), 노 타티아나, 요한(좋은 씨앗 한글학교), 크리스, 다니엘 김(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 3) 날말 초급 1등(9명)
조미래, 이연우, 임지훈(중앙 한글예술학교), 원로하, 이수연(오사랑 한국학교), 김솔희, 인하원(에덴 한글학교), 김유나, 안미향(사모아 한글학교)
- 4) 날말 초급 2등(5명)
김강수(중앙 한글예술학교), 유미주(좋은 씨앗 한글학교), 정호진, 김별하(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김니아(오사랑 한국학교)
- 5) 문장 기초 1등(3명)
하늘 수에히사,박예은(중앙 한글예술학교), 이재민(사모아 한글학교)
- 6) 문장 기초 2등(6명)
홍예림, 배윤아, 야노 지수, 정유나(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이연아(중앙 한글예술학교), 이도윤(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 7) 문장 초급 1등(2명)
서현지, 장준영(좋은씨앗 한글학교)
- 8) 문장 초급 2등(2명)
정진아, 정진호(하와이 천주교한글학교)

2019
글짓기 대회
장원 작품

중요한 밑거름

김영서 사모아 한글학교, 10학년

다른 주제들도 있었지만 나는 기행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점점 대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스케줄 탓에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나의 소중한 추억이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너무 앞만 보고 치열한 경쟁들에 뛰어드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이번 글짓기 대회를 통해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며 나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오빠 2명, 나, 그리고 남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가족으로 현재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3년만에 방문하였다. 우리는 하와이로 떠나기 전날 까지도 짐을 정리했다. 특히 나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생각나는 거라고는 하루종일 짐 정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 4시에 일어나 공항에 간 것 뿐이다.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너무 신이 났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었지만 안 그래도 하와이를 무척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은 하마터면 원래의 목적을 잃을 뻔하였다. 그렇게 하와이에서의 즐거움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어깨 너머로 들리는 한국어가 내가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더욱 더 실감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때 나의 감정은 김구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의 고군분투 끝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을때 만큼 감격스러웠다. 곧이어 공항 출입문 앞에 마중 나와 계셨던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소스라치게 놀랐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창밖의 건물 등이 잘 안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광경을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저녁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름다운 밤의 도시들이 야경을 빛내주고 있었다. 놀라움에 연속과 함께 기대감도 컸지만 장마철을 맞이하여 억수로 내리는 비와 그 후에 찾아온 폭염이 나를 거의 집안에만 붙들어 놓았다.

부산에는 외가가 서울에는 친가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자주 왕래를 해야 했었다. 그 후 여테껏 그리워도 못 만났던 양쪽 가족을 뵈는 순간 정말 만감이 교차했었다. 날씨 때문에 그동안 못 놀았었는데 가족들께서 없는 시간을 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 부산에서는 부산의 자랑이자 상징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에서 관광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엄마가 대학생 시절때 자주 갔었던 연양불고기 같은 맛집들을 탐방했다. 또한 부산 특유의 고향 같은 느낌이 나를 한층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부산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던 도중 아빠가 가족 이벤트인 이름하여 “동해를 거슬러”라는 일정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SRT를 타면 3시간만에 갈 거리를 차를 타고 많은 휴게소들과 강원도를 지나 늦은 밤이 되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반대 했었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잊을 수 없는 가족과 함께 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아빠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장원 김영서 학생의 원고지 내용을 그대로 옮겼음)

2019 정기총회 및 제2회 사은의 밤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오후 5시- 9시
장소: 와이키키 리조트호텔 레후아볼룸
정기총회: 오후 5시- 오후 6시, 레후아 볼룸
환영사: 손애자 회장
축사: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
주호놀룰루 권오금 부총영사
시상식/ 디너
참석: 교장, 교사 총 90명

- 1)2019 글짓기 대회수상자
장원: 김영서(사모아 한글학교)
최우수상: 이도현(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우수상: 박 레이첼(사모아 한글학교)
장려상: 김민준(사모아 한글학교)
장려상: 강지은(로고스 명품한글학교)

- 2)우수교사 표창(주호놀룰루 총영사상)
김경애(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케티 스키(무궁화 한국학교)
멜로디 안자이(하와이 천주교 한글학교 교장)
장미희(좋은 씨앗 한글학교 교장)
전선희(중앙 한글예술학교 교장)
홍진혁(오사랑 한국학교)
정춘란(사모아 한글학교)

- 3)차세대 교사상
이현아, 최지우, 최희선(감람 한글학교)
강이슬, 전은혜(로고스 명품한글학교)
김혜진(무궁화 한국학교)
손영미, 이 준, 홍진혁(오사랑 한국학교)
장준영(좋은씨앗 한글학교)
신효정(푸른나무 한글학교)
김성희(하와이 한인사회학교)

- 4)장기근속상
[5년 근속상]
김셋별(무궁화 한국학교)
오연주(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김혜숙, 홍진혁(오사랑 한국학교)
앤 요시노(하와이 한인사회학교)
[10년 근속상] 고 욱(오사랑 한국학교)
[20년 근속상] 이미셀(아이에아 한인문화학교)

- 5)개교 5주년 학교 상
좋은 씨앗 한글학교 (교장 장미희)

- 6)개교 15주년 학교상
감람한글학교 (교장 박태진)

- 7)개교 30주년 학교상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교장 구제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학교」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최석태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교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희영 새하늘 한국학교 교장

미국 공립학교 온라인 수업

한연성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교장(VA 캠퍼스)

NAKS
SPECIAL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최석태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교장

‘아! 우리 사랑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될 줄이야!’

Covid-19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학교 교장으로서는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했었다. 확진자들이 한국에서 처음 크게 늘어난 것이 2월 20일 경이었다. 한국에 다녀오면서 감염된 가족이 있는 학생이 만약 한국학교에 와서 집단감염이라도 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학교는 사태가 잠잠해 질 때까지 가벼운 숙제만 내주면서 임시 휴교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까지 크게 확산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그래서 휴교를 2주씩 하면서 아마 4주, 길어야 6주면 다시 개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에 확진자들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당분간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자 ‘계속 휴교를 하는 것’과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만약 계속 휴교를 한다면, 가을학기부터의 한국학교 커리큘럼이 거의 한 학기씩 뒤로 밀리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6개월 이상 한국어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이 다시 같은 실력으로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정규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루만 준비하고 3월 16일부터 바로 시작했고, 동북부의 많은 한국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학교들도 있었다.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원격조정수업의 긍정적인 부분과 어려운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였다. 그 어려운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되었다.



부모님들의 부담 Zoom등을 이용한 화상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들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주중의 정규학교 수업 역시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말에 한국학교 수업까지 돕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어린 자녀가 여럿이거나, 의료분야에서 일하셔서 더 일이 많아진 부모님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각 가정의 상황 특히 자녀가 여럿인 경우, 집에 화상수업이 가능한 컴퓨터가 자녀 수만큼 있고, 각각 수업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선생님들의 부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가 훨씬 어렵다.

이제까지 한국학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크래프트, 노래 등의 활동이 많은 유아반이나 초급반의 경우, 수업을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수업 지도를 녹화해서 올릴 경우, 기록으로 남아 본인의 수업 장면이 영상으로 유출 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크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일단 온라인 수업을 각자 준비해 보면서, 만약 한다면 3주 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첫 작업은 부모님들께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전에 실제로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과 컴퓨터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나 컴퓨터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셨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온라인 수업 한 주 전에 우리 한국학교 교사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정하였다.

- 기본적으로 모든 반은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수업 Direction과 과제가 나가며, 학생/부모님과 단체 소통을 한다.
- 유아반들은 (1학년 이하 어린반들) 선생님의 목소리나 모습이 들어간 영상을 Power point의 Record Slide Show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과 여러가지 영상자료, 그리고 프린트 과제물들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 경우, 부모님들께 정확한 Direction을 드리고, 가능하면 반복된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초급반들은 (2, 3 학년 레벨) 화상수업이나 선생님이 제작한 영상을 이용한 수업을 선생님의 수업방식 혹은 내용과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부모님의 도움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영상을 사용할 경우, 유아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Direction과 반복된 패턴이 중요하다. 그날의 온라인 수업과 연결된 과제물을 준비해 전달한다.
- 중급, 고급반은 주로 Zoom을 이용해 화상수업을 하며, 다양한 과제물을 이용한다. 온라인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이 화상수업에 익숙해 질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 영상이나 화상수업은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하며, 과제물을 합쳐서 중간실력의 학생이 2시간 이하로 마칠 수 있는 양만 준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수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 화상수업은 9:30 - 10:30, 그리고 11:00 - 12:00, 이렇게 두 Section으로 나누어 그 중 한 Section만 반들에게 배정한다. 화상수업을 위한 컴퓨터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가정의 형제가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도록 Section을 조정한다. Quizlet, Lingt. com등을 적극 활용한다. (각 과의 단어 연습과 듣기, 읽기, 말하기 연습)
- 항상 전화나 카톡 등으로 부모님과 개인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부모님들의 형편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불가능해진다면 언제든 온라인 수업내용을 수정하거나 멈출 수 있다.

두려움 속에 시작한 첫 주 온라인 수업에는 예상대로 어려움이 많았다. 학생이나 부모님과 연락조차 안 되는 가정들도 있었다. 학생들 중에 영상이 되지 않아 마냥 기다리다가 화상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시간 사용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다른 반에 지장을 주는 일도 있었고, 숙제를 이해 못해서 잘 못 제출하는 부모들도 계셨다. 그러나 오늘로 3주를 지나면서 다행히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 사랑한국학교는 Google hangout이나 무료 zoom의 제한이 많아서 유료 Zoom을 구입했다.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염려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수고하면서 한국학교 원격 수업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훨씬 더 향상되고, 우리 한국학교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희영 새하늘 한국학교 교장

2020년은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코로나 19라는 사태가 발생하여 한국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휴교를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음에 3주는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바라보며 한주 한주 휴교를 결정했지만 결국 2학기 전체를 휴교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자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교 사역팀과 고민 끝에 온라인 수업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의 큰 부분을 닉스가 도와주었다. 학기 초부터 선생님들이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닉스 이 메일 계정이 빛을 발했다. ZOOM이라는 회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각 학교의 줌 계정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한 것이다. 남궁령 웹간사님이 빠르게 승인을 받아 우리 닉스 이 메일 계정이 학교로 인정을 받아 무제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새하늘 한국학교 각 반 선생님들은 닉스 이메일계정을 통해 줌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 무제한 서비스를 받아 학생들과의 수업을 준비하였다. 처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각 반에 한두 명만이라도 들어오면 수업을 진행해 보자고 결정했었는데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만나는 멋진 수업의 시간을 만들었다.

shelter in place로 종일 집에 갇혀 지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은 큰 즐거움이 되어 주었고, 학생들의 반응에 선생님들도 더욱 신나 수업을 준비하셨다. screen share를 통해 교과서 PDF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Kahoot 이나 Quizlet 등을 사용하여 더욱더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떠드는 학생의 소리는 mute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할 수도 있어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었다. 새하늘은 12년 전부터 과제물이 이메일로 나가고 있었지만 고학년 반은 구글 클래스도 함께 사용하였다. 피하지 못하면 즐거라고 했다. 이 상황을 온라인 수업이라는 형태로 새하늘 학생들과 선생님은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공립학교 온라인 수업

한연성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교장(VA캠퍼스)
(New Hampshire Estates Elementary School Teacher)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시간이 그리운 요즘을 두고 무엇이래 미래는 기록을 할 것인가
궁금해진다. 전에 없었던 사태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립학교도 된단 안된다 말이 많은 중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3월 말에 시작하여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요즘은 눈을 뜨면 어김없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오늘 할 수업에 대해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근무하던 시간이나 집에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내가 다니는 학교는 Elementary School이고 내가 들어가는 학년은 1th Grade이다. 여기는 Maryland Montgomery County에 속한 공립학교이고 나의 포지션은 Educational Support teacher(ESOL, Extracurricular teacher)이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학부모들과 전화로 일일이 온라인 수업공지를 하고 그 후에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파악한 후 학교에 설치된 Chrome Book(학습용 컴퓨터)을 각 가정에 배부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수업 중에 Kindergarden 부터 Chromebook 을 이용한 수업을 하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 원활히 사용을 할 수 있고 각자의 ID 가 있어서 하드웨어 문제는 없었다. County에 이미 평상시 수업때 사용하던 자료가 이미 충분히 저장되어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도 온라인 수업지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단지 학생들이 저학년이다 보니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부모들과 Zoom 사용방법을 공유한 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간단히 수업일정을 정리하면 매일 아침 9시에 학생들과 Zoom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11시까지 학급 정상 수업은 마치고 점심 후에 오후 수업인 Special Class를 한다.수업 전에 Google Classroom을 통해 일정과 Zoom Meeting 주소를 올려놓으면 부모들이 확인을 하고 주어진 자료로 들어오면 수업이 가능하다. 그날의 수업의 내용을 수업전에 동영상, Share할 내용을 Google Classroom에 올려놓고 학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함께 열어서 수업을 이끌어 간다.숙제는 본인들이 하도록 Work란에 올리고 숙제를 마치고 나면 본인들이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면 교사가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어려운 자료나 읽기 자료는 Benchmark Universe 라는 웹을 활용하고 다행히 오프라인 수업 중에도 교사들은 온라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https://gm.greatminds.org/en-us/knowledge-for-grade-1>

<https://mcpsmd.benchmarkuniverse.com/#library/switchProgram/Benchmark%20Advance%20c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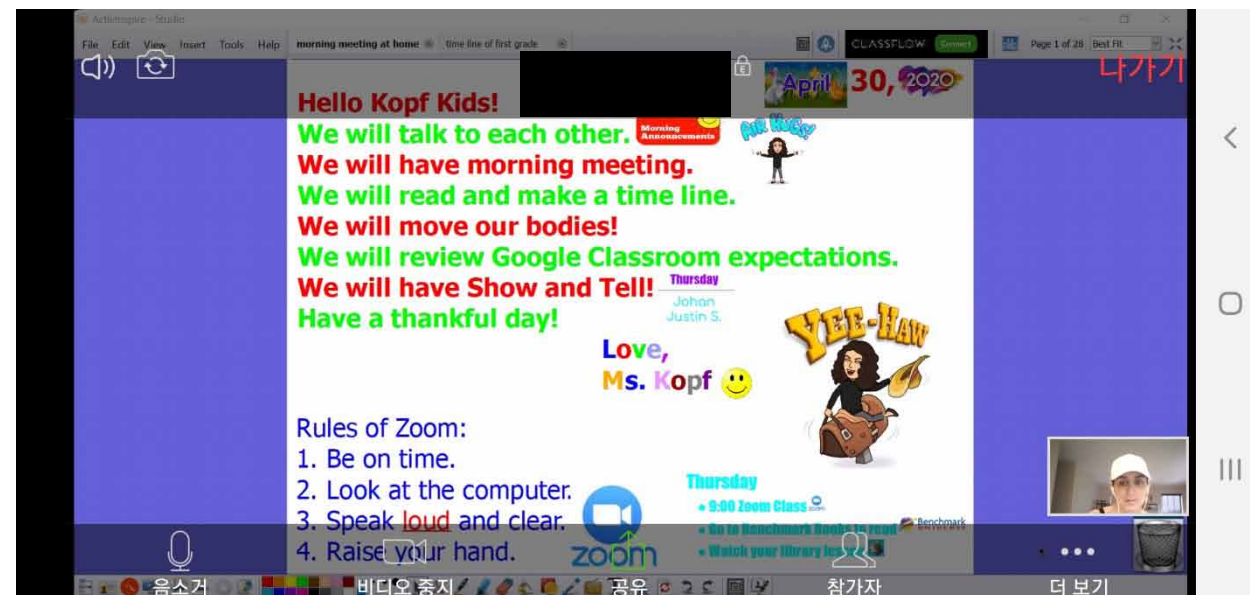
[Quizlet.com](https://www.quizlet.com)

[kahoot.com](https://www.kahoot.com)

한국처럼 교재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Resources Bank가 있어서 교사들이 회의하면서 각 학년에서 사용할 내용을 편집해서 쓰고 있었기에 온라인 수업도 조금은 수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보다 더 많은 온라인 수업 자료나 수업이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교사는 가이드라인만을 주고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료를 컴퓨터로 받아서 수업에 활용하는 식의 학교 교육이 될 듯하다.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찾고 숙제를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저학년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하도록 가정에서 돕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엄격한 규율이 있지 않으면 수업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어려서 수업을 안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집중력이 조금 약하다는 한계는 있었다.

다들 열심히 수업에 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기회로 많은 교육단체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바뀌리라 사려 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공부하는 자세도 컴퓨터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태도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1. 필요한 기기, 도구

-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 내장)
- 웹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인터넷 연결

2. 앱 준비

1) Zoom 앱 설치

- Zoom account 만들기

Edu na org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어야만 Zoom에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40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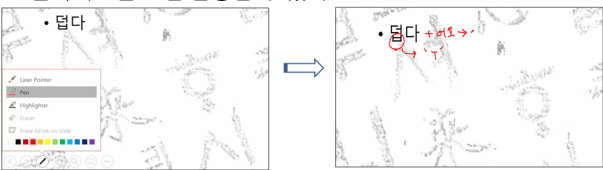
(Zoom 경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임시로 40분 제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Zoom에서 언제든지 다시 40분 제한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du na org 계정이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가서 NAKS 이메일 계좌 신청을 해주세요.

<https://www.naks.org/iml/support-mainmenu-item/naks-email-request-main>

2. 1) Zoom 사용법 2

- 파워포인트 share할 경우, 왼쪽 하단의 펜을 클릭하면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펜마우스, 컴퓨터 펜(e.g. XP Pen, Pen tablet, Pen mouse)등이 있으면 더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2. 1) Zoom 사용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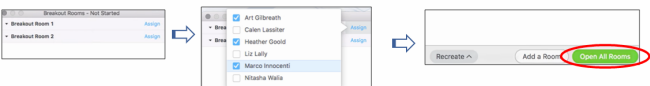
- Set-up: Screen Share 기능
-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
 - 읽을 사람을 지정해주세요. (소리 영킹 방지)
- 기사를 공유하여 시간을 주고 읽기 문제 풀기
 - Google Classroom의 Quiz Assignment와 같은 form을 이용해도 좋아요.

2. 1) Zoom 사용법 6-1

- Set up
- 1. 하단에 있는 break out rooms
- 2. 몇 개의 방을 만들지, 학생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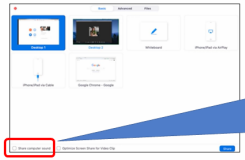
- 3. 학생들을 짝을 지어 나눔: 학생들의 이름을 클릭하여 Assign



2. 1) Zoom 사용법 1

- Zoom Set-up: Screen share

1. 비디오 창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share screen" 선택 (중간, 초록색 버튼)
2. 어느 화면을 share할 것인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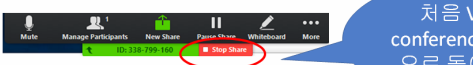
오디오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경우 (e.g. 새 단어 오디오 듣기, youtube의 영상을 공유 등등)에는 "share computer sound"를 클릭해야 해요!

2. 1) Zoom 사용법 3

- 화면 share할 때 white board를 선택하면 칠판에 쓰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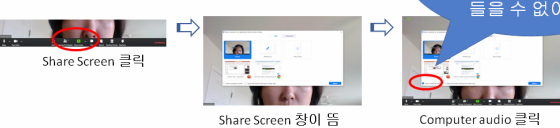
- Sharing 끝내기: 모든 설명이 끝나면 화면 상단에 있는 "stop share" 클릭



처음 Video conferencing 화면으로 돌아가요.

2. 1) Zoom 사용법 5

- Set up



- 가능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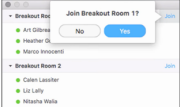
- 같이 오디오를 듣고 따라 읽어보기
- 같이 오디오를 듣고 교과서에 있는 듣기 문제 풀기
- 같이 동영상 보고 듣기 문제 풀기

2. 1) Zoom 사용법 6-2

- 4. 학생들에게 join 메시지가 전송됨. 클릭하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음



- 5. 교사는 방마다 join, leave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진행을 지도하고 질문을 받아줌



2. 1) Zoom 사용법 7

<그 외의 알면 좋은 기능>

- Main session에서 공유한 screen은 break room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 말하기 활동지는 교재를 이용하거나 Google Classroom에서 자료 업로드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해요~
- Breakout room에 있는 학생들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sk for Help"를 클릭하면 질문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2. 1) Zoom 사용법 9

- 가능한 활동

- 말하기 수업과 함께 구글에 문서를 공유하면 쓰기가 가능함
- 주의!
 - 한글 타자 능력이 없거나 한글 타자가 느린 학생들은 온라인 쓰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대안: 종이에 연필로 직접 쓰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

- 기초와 입문의 경우, 혹은 학생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함

2. 1) Zoom 사용법 11

- 학생별로 이름을 부르며 출석체크: 모두 오디오와 비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하기
- 학생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 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
-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경우, 특히 한글타자가 힘든 아이들의 경우 교사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함

2. 2) Google Classroom 세팅: 수업용 학급 만들기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Google Classroom 사용법 안내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U4ryEc9Ys&list=PL39zPj3fLIPnEZUm95GoVfokYIImjFE8>

1. 오른쪽 상단의 (+) 표시를 클릭하면 "Join class"와 "Create class" 두 개의 선택지가 나타난다. class(방)을 만드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Create class"를 누르고 학생의 경우에는 "Join class"를 누른다.
2. Create class를 선택하면 반 이름, 단원, 과목, 강의실의 내용을 입력한다. (이 부분은 차후에 수정이 가능함)
3. 화면의 타이틀이나 로고 등은 수업에 적합한 사진이나 자체 제작한 이미지로 꾸미기가 가능하다. 오른쪽 상단에 Select theme를 클릭하면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Upload photo를 클릭하면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왼쪽 상단에 Class code를 클릭하면 해당 클래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코드를 알려주어야 (초대하기 기능) 해당 코드를 통해 학생들이 방에 가입할 수 있다.

2. 1) Zoom 사용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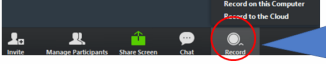
- 가능한 활동

- 책의 대화를 역할분담하여 읽어보고 책에 나온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음
- 교재의 대화와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만들고 그것을 main session에 발표하기
- 주제별로 토론 후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고 (쓰기 활동)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main session에 팀별로 발표해 보기

2. 1) Zoom 사용법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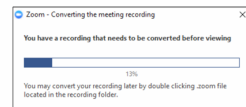
- 과제물 제출을 위해서 녹화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1. 비디오 하단 오른쪽에 있는 'record' 클릭



"Record on this Computer"를 클릭하면 녹화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됨
"Record to the Cloud"를 클릭하면 녹화파일이 Zoom 홈페이지 내 페이지에 저장됨

2. 미팅이 끝나고 "Leave meeting" 버튼을 누르면 녹화 파일이 생성됨



2. 앱 준비

2) Google Classroom 세팅: 사용하기 전 할 일

1. 자신의 구글 메일이 있어야 한다.
다른 메일을 쓴다면, 크롬 (익스플러 x)에 접속해서 개인 계정을 개설한다.
2. 메인 화면에서 Gmail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신의 메일에 접속한다.
3. 그 상태에서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9개의 점이 찍힌 부분을 클릭한 후, 스크롤을 내려 'Classroom' 아이콘을 찾아 접속한다.

2. 2) Google Classroom 세팅: 학생 초대하기

구글 클래스룸 상단 People (학생) 탭을 클릭한 후 +학생 초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여 초대를 하거나 수업 코드를 학생에게 알려주고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클래스룸에 로그인
- 홈페이지에서 (+) 버튼 클릭
- 수업 참여하기를 선택하고 수업 코드 입력

2. 2) Google Classroom 세팅: 수업용 과제 올리기 1

1. 학급에 과제를 올리려면 수업 (Classwork) 탭에서 (+ Create) 을 클릭한다. 수업을 과제, 퀴즈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을 재사용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과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Assign 을 클릭하면 과제를 만들 때 임시 저장도 가능하며, 예약 과제도 가능하다.
2. 과제를 만들기 위해 제목을 입력한다.
 - * 안내 사항도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다.

2. 2) Google Classroom 세팅: 수업용 과제 올리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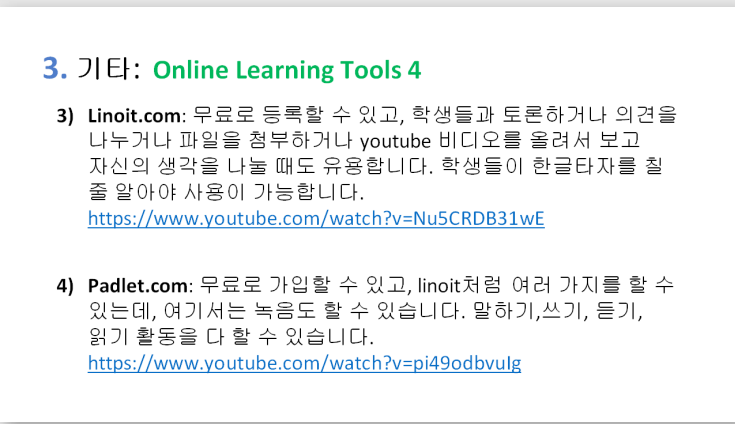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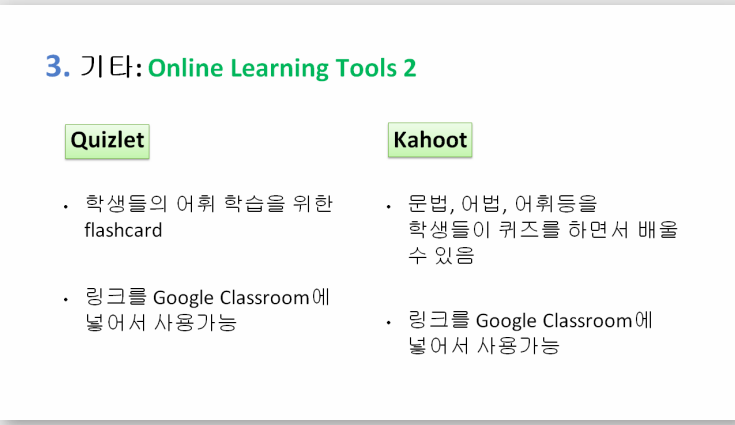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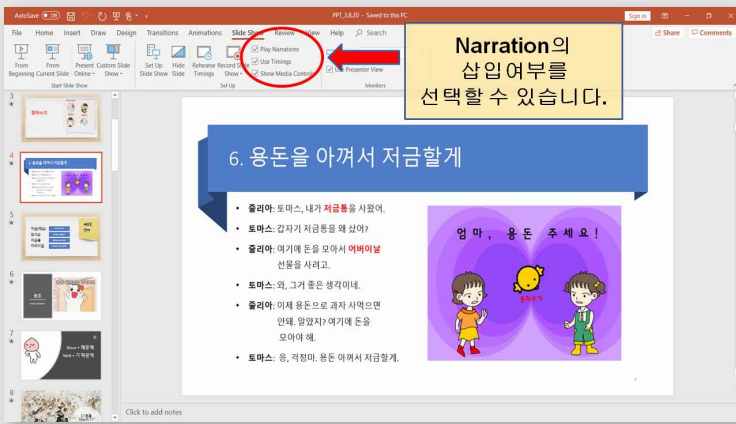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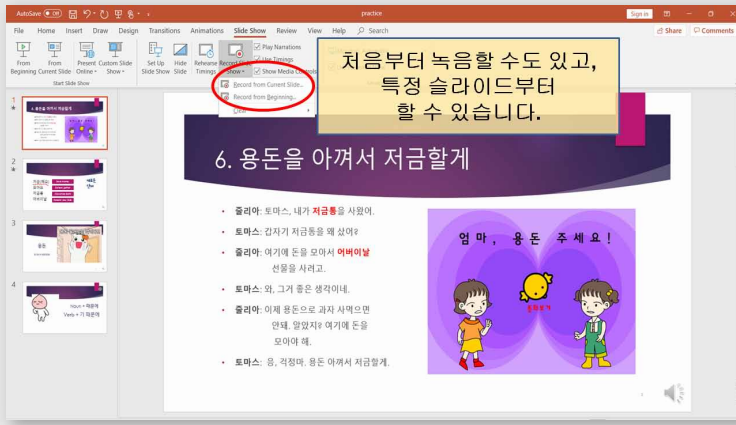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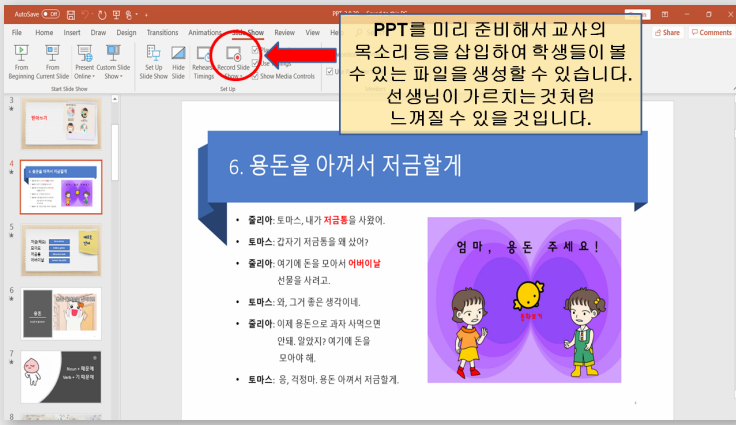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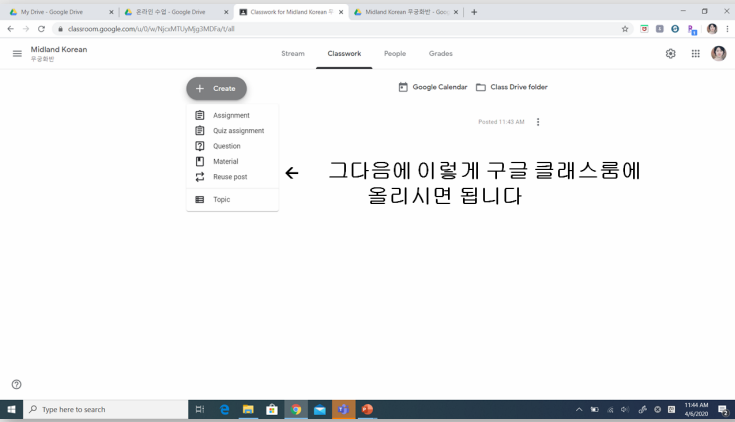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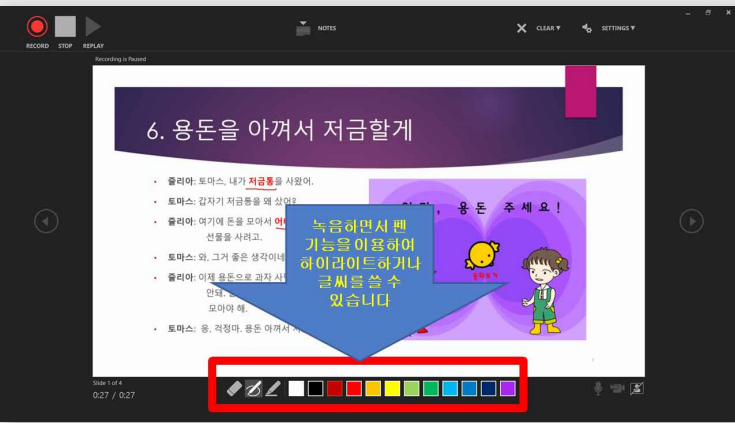
3. 과제를 만들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1) 첫번째 방법은...
 - Add(추가)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원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올린다.
 - I. Google 드라이브에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과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 II. 링크 추가하여 올리거나
 - III. 기타 과제 관련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 IV.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다.

2. 2) Google Classroom 세팅: 수업용 과제 올리기 3

- 2)두번째 방법은...
- (+) Create을 클릭하여 현재 과제방에 필요한 과제를 구글 플래폼을 이용해 적석에서 만든다.
4. 오른쪽 탭에서 대상, 점수, 기한, 기준표를 설정한 뒤 오른쪽 위의 Assign (과제 만들기)을 클릭하면 과제가 생성된다.
 5. Stream (스트림)을 클릭하면 과제가 만들어져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 Google Classroom: PPT에 음성 강의 내용 삽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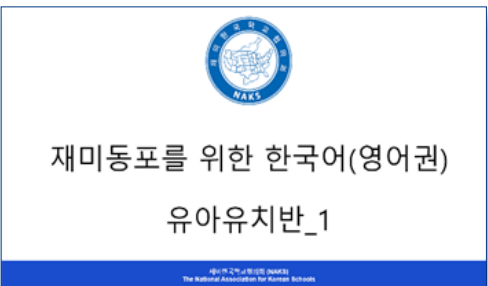
- 좀 수업을 하면서 screen share를 통해 PPT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PPT 파일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교사의 목소리를 삽입하여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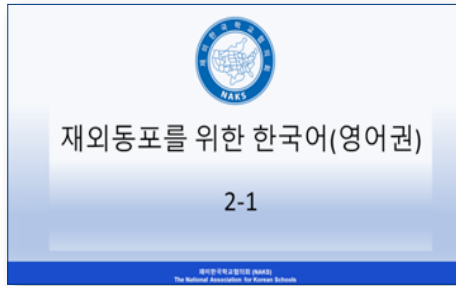


이름	김 술	이메일	dearsori@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뉴올리언즈 한국학교 / 남서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1.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자료, 교과서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유아, 유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한글이 야호 동화>의 자음 순서로 단원을 나누고, 그와 관련된 창작 동화와 동요를 찾아 배운 단어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서 격리하며 보내야 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맡게 된 이 프로젝트는 오랜만에 한국어 수업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스스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멀티미디어 자료들 속에서 주제와 연관된, 도움될 만한 자료를 찾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작업하였고, 마치고 나니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NAKS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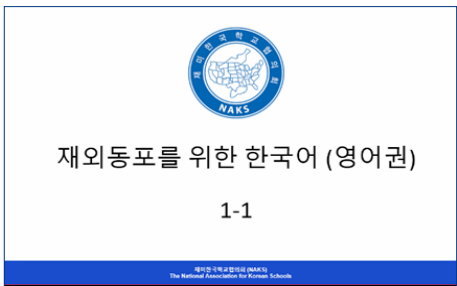


이름	최지현	이메일	gojhchoi99@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달라스 캐롤튼 제1캠퍼스 / 남서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교재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수업이다 보니 유아의 연령과 이해도에 적합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하거나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한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와 동요, 동영상 등의 다양한 학습 소재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업 주제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한글 단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율동, 탐구학습 등의 '특별활동'을 더하여 "재미있는 한글"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먼저, 제가 이렇게 큰 목표와 포부를 가진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써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세 아이들의 평범한 엄마로써, 우리 아이들이 제 뿌리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한글 교육의 뜻이 시간을 두고 더하고 더 해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국과 전세계의 아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집니다. 또한, 처음 겪어보는 혼란의 시기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나름의 방법과 경험으로 새롭게 개척해나간 OCS Team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수고에도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단, 지금 잠깐을 위한 행보이기보다는 앞으로 NAKS와 더 나아가 재외동포, 한국을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 라도 한국을 알리고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한 일들의 초석이 되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이 기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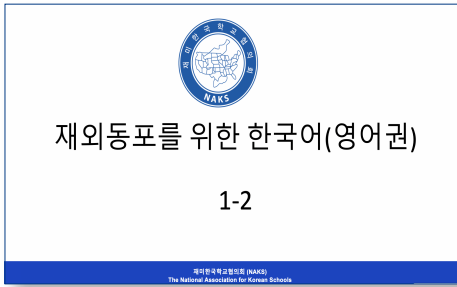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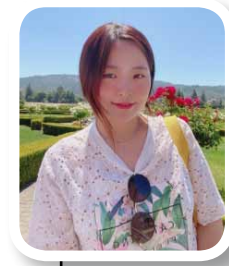
이름	박혜윤	이메일	Haeyoonpark78@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워싱턴통합한국학교-MD / 워싱턴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저 대상을 저학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재만 하기에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교재 내용 중심으로 제작한 뒤, 조금 더 다양한 수업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만들었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더 많이 배웠습니다. 온라인 수업 자료라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더 재미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아쉽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OCS team에서 만든 온라인 수업 자료가 당장 저 자신부터 다른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겨지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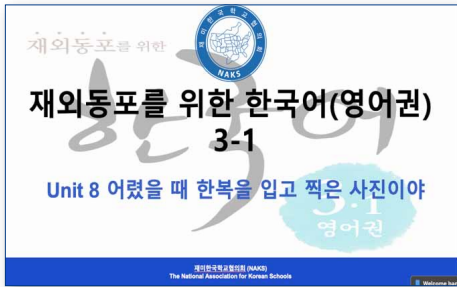


이름	윤은경	이메일	Tintmano77@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 동중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제가 맡은 재외동포 한국어는 1-1 은 한글기초인 모음,자음의 구성과 쓰임을 알고 ,나아가 복합 모음,쌍 자음,받침 글자를 구성하는 결합 원리를 배우고 읽고 응용 해 보는 과정이 있고 이런 기초한글을 토대로 한 기초문장의 구성과 원리를 배우고 이해 할 수 있는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영어와 어순과 구성이 다른점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고 PPT의 여러 기능적인 요소를 넣어서 재미있게 이해 하도록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없는 표현인 조사 '은/는/이/가/을/를/에/도' 의 쓰임새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에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어진 조사와 목적격 조사 그리고 장소나 위치에 쓰이는 조사의 차이점과 앞 글자의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달리 쓰이는 점 등을 다양한 문장을 예시로 들면서 정확한 조사의 표현과 쓰임 이해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PPT의 강점인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첨부하여 평면적이고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슬라이드를 등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처음에 열떨결에 맡았을 때는 부족한 실력에 걱정이 많았고 제가 만든 수업자료가 전 세계의 한국학교에서 사용되고 활용되어 질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심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한 과를 제작하는데 6-7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PPT의 기능적인 요소를 숙지해야하는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슬라이드를 만드는 테마를 잡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처음에 우리팀 미팅과 다른 선생님들이 사전에 만드신 슬라이드를 많이 보고 방향성을 잡았고 그 뒤로는 슬라이드의 내용에 신경을 쓰면서 점점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개 정도의 과를 완료했는데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지금은 과제를 완료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완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가사일과 돌봄으로 인해 PPT 제작을 집중력 있게 하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 수록 한 과를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처음 보다는 수월하게 진행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PT 기능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프로젝트를 끝낸 성취감과 자부심도 있구요...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무기력한 일상에 이런 좋은 유의미한 일에 참여하고 고민하고 많은 열정을 쏟게 해주시고 성취감과 보람을 가지게 해 주심에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외 모든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팀원 분들에게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일로 함께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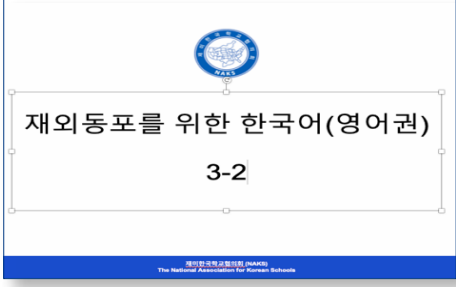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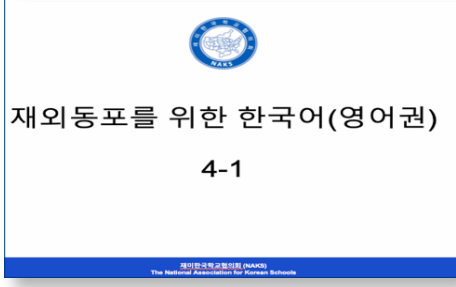


이름	김지영	이메일	Kim10314@yahoo.com
소속학교/협의회	찬양한국문화 학교 / 동북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기본 교과서에 중점을 두면서 되도록이면 여러가지 부교재 및 동영상 자료들을 사용해 온라인 수업이 생소한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를 더하여 지루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나마 배움의 흥미를 느끼게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처음 저희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돌리게 되면서 막막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작게나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께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일을 진행하며 오히려 많은 선생님들께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주로 하여 진행 하던 수업을 모두 ppt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덕분에 더 많은 온라인 툴들을 알고 배웠습니다. 단 한번의 미팅과 몇번의 이메일로 이 큰 일을 무리없이 마무리 하신 팀원들과 늦어지는 원고에도 나무람 없이 항상 격려로 이끌어 주신 총회장님,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저희 학교를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리모트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활용하여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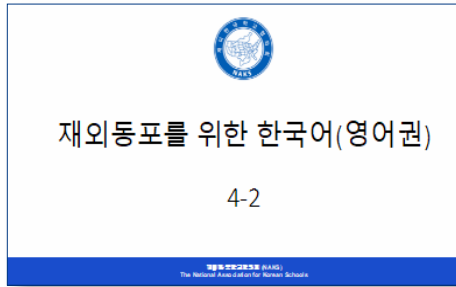


이름	권순형	이메일	soonhyung.kwon@naks.org
소속학교/협의회	새하늘한국학교 / 북가주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1. 수업 시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 속 컬러의 최소화 (검정/파랑을 중점) 2. 슬라이드를 봤을 때 복잡하지 않도록 구성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게 구성) 3. 모든 챕터에 손으로 쓰기/그리기/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활동들 추가 4. 듣기 활동을 지루하지 않도록 매 단원 다양하게 변형 5.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 슬라이드를 균형 있게 배치 6. 양이 많고 헛갈릴 수 있는 어휘를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quizlet 뿐만 아니라 5초 퀴즈 등을 추가		
OCS TEAM 마친 소감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자료를 쓴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수업 준비 할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지만, 최대한 이 프로젝트 취지에 맞도록 교재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을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오늘 배운 한 단원을 통해 그저 배웠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글로써 말로써 그림으로써 남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리기(색칠), 쓰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매 단원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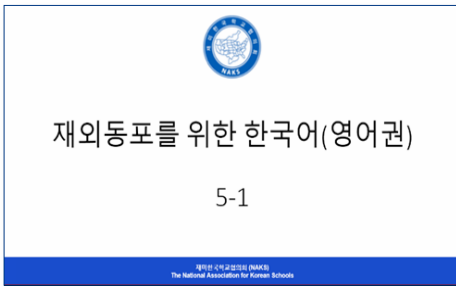


이름	황정숙 (Jane Cho)	이메일	Jeongcho7@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사랑한국학교 / 동북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 재외 한국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에 적절한 자료 개발 - 한국어 교재 (영어권 중심)와 워크북 중심의 철저한 학습 - 말하기와 듣기와 쓰기와 읽기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수업 자료 - 정확하고 바른 교사의 문법 강의와 복습을 통한 학습 유도 - 각 과와 연계성을 가진 동영상 자료나 읽기 자료 선택 - 1-2시간의 수업을 위한 자료와 1시간 개인 학습을 위한 과제 - 말하기와 듣기 연습을 위한 웹사이트 툴을 활용한 과제 - 집중과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흥미로운 교육 자료 삽입 -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학습 도구 활용 - 각 과와 연계된 시청각 교육자료의 적극 활용		
OCS TEAM 마친 소감	COVID-19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외 한국학교 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음. 온라인 한국어 수업 준비를 위해 고심하시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료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 짧은 시간 안에 3-1과 4-1 의 많은 수업 자료 개발이 어렵기는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한국어 교육 자료와 효과적인 웹 툴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였음. NAKS 회장단과 사업 담당자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자료 개발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들이 계속 더 보완되고 수정되고 개발되기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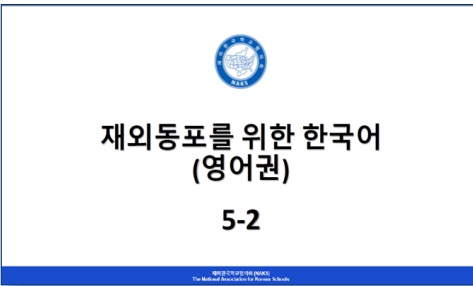


이름	원정희	이메일	Jungheewon0302@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뉴저지한국학교 / 동북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 모든 교사들이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기 쉽게 내용 넣기 • 교과서에 충실하게 내용 넣기 •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향후 교실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슬라이드의 글씨 크기 / 화면구성하기 • 한 슬라이드에 한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효과 있게 구성하기 • 내용에 맞는 그림/이미지 찾아서 넣기 • 교과서PDF를 사용하는 것과 슬라이드 사용 중 효과적인 것을 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교과서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되 교과서PDF와는 다르게 슬라이드 구성하기 • 띄어쓰기, 철자법 지키기		
OCS TEAM 마친 소감	준비 기간이 짧고 시간이 촉박하여 아쉬움도 남고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보여지고 제공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은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채우시리라는 생각으로 슬라이드 제작을 하였습니다. COVID-19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 다른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고 한국학교 교사 생활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되었습니다. 같이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과 슬라이드를 보면서 많이 배웠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선생님들이 있음에 힘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나스 임원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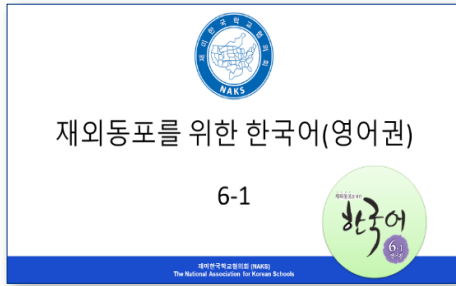


이름	송민선	이메일	michaellaminsun@g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워싱턴통합한국학교-MD / 워싱턴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과 그림 자료를 많이 넣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업자료에 많은 대화를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과제를 완성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꼭 필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온라인 수업자료들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기획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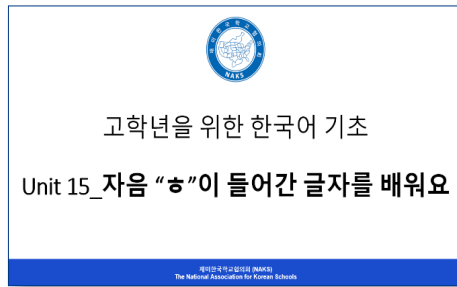


이름	송아리	이메일	arisong@naks.org
소속학교/협의회	새하늘한국학교 / 북가주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 - 교재 MP3파일 포함 •교재와 관련된 동영상 넣기 - 수업 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수업 후에 토론 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슬라이드마다 교재 쪽수를 넣어서 교사와 학생이 찾기 쉽게 하였음 •인터넷 사용이 힘든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휘 슬라이드를 추가하였음 •문법 설명 부분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클립아트를 활용하였음		
OCS TEAM 마친 소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대면 수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낙스 주관으로 온라인 수업용 자료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소스로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권순형	이메일	soonhyung.kwon@naks.org
소속학교/협의회	새하늘한국학교 / 북가주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교재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대개 중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 내용과 디자인 면에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제작 의도를 심분 활용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의 안내를 충실히 따르는 한편, 교재가 제공하지 못하는 최신 정보와 동영상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생생한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휘를 소개할 때는 교재에 이미 영어 뜻이 들어 있으므로 한자를 소개하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안내했고, 문법은 대화 속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상황을 함축하는 이미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문화 코너는 심화학습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업 이후에도 주제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 전에 교재,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파워포인트 자료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자료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이메일로 날아온 낙스 뉴스레터에서 온라인 교육 자료를 공유해 줄 21세기 독립투사를 찾는다는 공지를 보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총회장님께 연락 드렸던 게 지난 4월 중순인데 불과 두 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강산이 변한 느낌입니다. 함께 산을 들어 옮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로써 이제 막 또 하나의 역사를 완성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그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전 세계적인 한국학교의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 낙스가 보여 준 리더십은 정말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이처럼 마음에 와 닿기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일하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 모두의 성장을 위한 노력, 이 아름다운 인연과 성공의 경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름	박소미	이메일	smwhang@hot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달라스 한국학교 맥키니 캠퍼스 / 남서부 지역협의회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기초반이기 때문에 한글의 원리, 자모음의 모양과 소리,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ppt를 통해 반복적으로 배우고 연습하여 스스로 쓰기와 읽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초반이라도 고학년이기 때문에 비록 자모음만 배우는 단계이지만 쌍자음, 이중모음, 받침, 문장 구성등을 미리 소개하여 한꺼번에 배우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글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어렵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다양한 것을 보여주어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5-6세 기초반을 담당하는 상태에서 고학년인데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런 방법을 썼더니 괜찮더군요.' 하고 소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드는 동안 한글 원리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ppt animation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여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오정선미 총회장님과 임원님들, 또한 그 많은 자료들을 정성껏 감수해주신 감수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직접 참여 교사들과 소통하시며 지칠 때 응원해주신 한희영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제작한
슬라이드
표지

이름	손민호	이메일	sonm71ho@hotmail.com
소속학교/협의회	뉴라이프 한국학교 / 북가주 지역협의회		



제작하면
중점을 둔
사항

1. QR SAT 한국어
QR Code를 이용한 SAT 한국어 듣기, 문법, 읽기 연습 문제를 QR Code로 만들어 쉽게 누구나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으면 SAT 한국어를 온라인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했고 연습 후에는 자동적으로 채점이 되도록 해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중고급반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 수업이지만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스키마 활성화(Schemata Activation)를 통해 학생들에게 그날 배울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자극해 주고 발판 단계(Scaffolding)를 통해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과제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기를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OCS TEAM
마친 소감

뛰어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나스 한희영 사무총장님과 전화통화 중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로 탄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COVID 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말미암아 학습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진 교육현장에 필요한 자료를 능력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온라인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더구나 이 자료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세계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뿌듯한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많은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자료 또한 유의미한 자료로 기억될 것임을 알기에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더욱 일신우일신해 나가는 멋진 단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

재미한국학교 졸업의 의미 그리고 미래



한국학교에서 졸업식이 필요한 이유는 ...

다솜한국학교 교장 최미영

도입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우리 다솜한국학교는 매년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학교는 물론 재학생과 부모님에게도 자랑스러운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고를 부탁받고 나서 펜을 들어보니, 필자도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 졸업식과 학교의 미래에 관하여 떠오르는 질문들이 다시 생각났다. 미국에 있는 주말 한국학교 중에서 졸업식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우리 학교는 어떤 계기로 졸업식을 도입하게 되었을까? 우리 학교의 졸업식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가? 한국학교에서 졸업식은 꼭 필요할 것인가?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다닌 한국학교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오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으로,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학교를 운영하는 보통의 교장들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해왔거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한다.

우리학교 졸업식

우선, 미국 내 한국학교 중에서 졸업식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를 알고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찾아보니, 졸업식 행사 사진과 기사가 있는 학교가 10여 개 정도 수준이었다. 물론 사진이나 기사는 없더라도 졸업식을 하는 한국학교도 있겠지만, 미국의 주말 한국학교에서는 졸업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색했던 기사나 사진에서 보면, 졸업식을 하더라도 나이가 초등학교 학생 같은데 졸업장과 꽃다발을 받은 학생 사진이 졸업식이라고 소개된 경우도 있었고, 행사 없이 졸업장만 주는 학교도 있었으며,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졸업 가운과 모자를 쓰고 멋진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물론 한국학교는 유아/유치 반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졸업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솜한국학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은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9학년까지 마친 학생만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졸업시키고 있다.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9학년까지 한국학교에 학생으로 다녀야 하고 출석과 성적도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 요건은 9학년 이상이며 3년 이상 모범적으로 본교에 출석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학업 성취나 활동(아래 사항 참조)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회의의 심사를 거쳐 졸업생을 확정하게 된다. 위의

www.naks.org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1년 이상 모범적으로 출석한 9학년 이상 학생 경우에는 졸업이 아니라 수료로 대신한다. 아래가 그 졸업 요건들이다.

- 3년간 학교에서 실시한 학력 평가 시험에서 평균 80% 이상 획득 및 80% 이상 출석
- SAT 한국어 본고사 혹은 모의고사에서 70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TOPIK 시험 3급 이상 획득
- 기타 교내외 한국학교 관련 활동에서 동상 이상 수상자 (Option)
- 졸업 프로젝트 완료

졸업식 도입의 계기

2020년 현재, 다솜한국학교는 개교한 지 만 16년이 되었다. 2004년 3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가장 학생이 많았을 때는 130명, 그리고 현재는 8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적당한 규모의 일반적인 주말 한국학교이다. 학교 통계를 확인해 보니 지난 16년 동안 약 1,000명의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문화를 배우며 그들의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현재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개교할 당시 유치원 학생이었다면 벌써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일 것이고 초등학생들이었다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기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 시작과 끝이 없다면 학교를 모교로 기억하게 될까?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은 과연 바른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서부터 2016년부터 다솜한국학교는 졸업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가 졸업식을 시작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사춘기에 들어선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한국학교로 이끄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에서였다. 우리 학교는 졸업 후에 졸업한 학생들을 보조교사라는 역할로 학교로 이끌어 졸업생에게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정체성 및 리더십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가주 지역에서 교장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최근에 와서는 유치부와 초등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재외동포재단 (이하 '재단')의 한글학교 관련 통계이다. 2017년 재단 통계에



졸업식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한국학교 학생이 감소하고 있고 2004년과 비교하면 1만 명 이상의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45.7%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에 유치부가 19.9%, 성인이 14.3%이다. 중등과 고등학생은 각각 12.6%, 7.5%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히 연도별 변화를 보아도 중 고등 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부와 초등학생, 성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 고등학생의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 형태별로는 영주하는 학생에 비해 일시 체류하는 학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곳 미국에 영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를 접한 경우가 많고, 또 실생활에서 쓰기도 하지만 학생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한국학교에 오게 된 아이들이다 보니 학습 동기가 낮은 편이고, 또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정규학교의 학업 및 특별 활동이 더 증가하고 주말에 다른 봉사 활동 등을 하면서 한국학교에 참여하는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본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부모들은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학교에 오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우리 한국학교의 사명이라 생각 하기에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초등이나 중학교를 마칠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첫번째 해인 9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고 그 후에는 후배 학생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하였다.

졸업식 진행 모습

우리 한국학교 졸업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졸업생들은 위풍당당 행진곡에 맞추어 엄숙하게 입장한 후 자리에 앉는다. 졸업생들은 각자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진 사진 자료 중에서

본인이 나온 사진들을 찾아서 수학 기간의 여러 활동에 관한 3분 정도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부분이다.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 동영상을 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9학년까지 계속 한국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고 재학생들도 '꼭 졸업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에 5세부터 9학년까지 다닌 졸업생이 몇 명 있었는데 유치원생이던 학생이 자라 졸업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감상하면서 학교와 함께 자란 졸업생들의 모습에 학생들과 부모님들 및 선생님들 모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던 일화도 있었다. 졸업생비디오를 감상하고 나면 각 졸업생은 자신들이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에는 졸업생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다솜에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를 널리 선포하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게 되고 선생님들의 축하와 포옹을 받은 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졸업 모자 태슬을 왼쪽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재학생 대표가 송사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졸업식은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졸업 행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한국학교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면, 선배가 졸업하는 것을 보고 7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니려고 했다가 졸업하기 위해서 더 다니기로 한 학생들의 이야기나, 내 아이도 위풍당당하게 졸업식을 하게 되기를 바람으로 계속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졸업식 그 자체로 한국학교의 의미 있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졸업식은 재학생들에게는 미래의 모습이고, 졸업생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학교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한국인의 후예임을 재인식하는 가장 뜻 깊은 행사 중 하나인 것이다.



◀보조교사 훈련

졸업생에게 기억될 한국학교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만, 본교에서의 졸업식은 한국학교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은 그다음 학기부터 보조교사로 함께 봉사하게 된다. 10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봉사하므로 보조교사는 3년의 세월 동안 리더십을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성장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졸업생이 보조교사를 하게 되면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생 그 자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학생 때 볼 수 없었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게 되고, 현재 재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과거 모습을 투영하며 반성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진지해서 보는 선생님들을 웃음 짓게 만든다. 그만큼 학생들이 보조교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를 사랑하며 교사를 도와 학교가 발전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보조교사는 교사로 예우하며 존댓말을 사용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또한, 교실에서의 보조교사 역할도 매우 다양한데, 이를테면 교실 환경 정비, 숙제 검사, 교재 준비, 1:1 수업 보조, 역사문화 조희 보조, 영상물 및 IT 보조, 특활 수업 등이 있다. 교사들도 이런 보조교사들의 역할에 관해 크게 감사하고 있다. 봄 방학 때에 보조교사들이 모두 다른 외부 훈련에 참여하느라 결석한 날이 있었는데 교사들은 보조교사의 도움이 없으면 학교를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며 공부하는 후배 학생들은 당연히 보조교사들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보조교사가 되고 싶다고 표현한다.

보조교사가 처음부터 훈련이 잘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는 보조교사도 학생들이기에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교사들이 오히려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보조 교사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교사도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직 학생인 보조교사는 더욱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에 본교는 매년 보조교사 훈련을 실시한다. 보조교사들은 이 훈련에서 선배 보조교사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보조교사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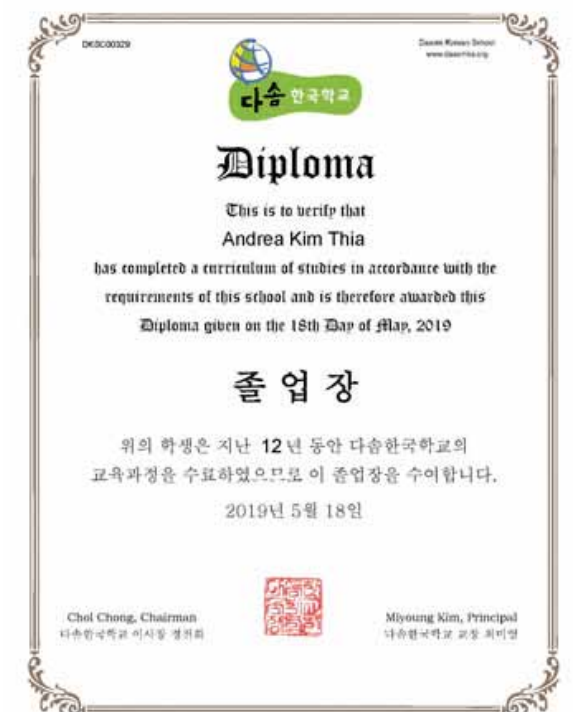
방법 등과 학생들 보호와 비상시 대비 방안 및 교실에서 자신들의 역할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첫째 아이가 잘되어야 집안이 잘된다는 말이 있듯이 선배 보조교사를 잘 훈련하면 후배들은 선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 보조교사 훈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보조교사들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본교에서 보조교사에게 수여하는 혜택은 보조교사 사은회, 장학금 전달 및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여 등이 있다. 3년여의 세월 동안 자신이 졸업한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하며 후배를 지도하고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배우는 자원봉사 정신과 리더십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한국학교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의 삶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

결론

졸업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르침을 준 스승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행해지는 의식이다”고 되어 있다. 미국에 있는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졸업에 대한 의미는 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 중에서도 중고등 학생이 줄어가는 것을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 부족이나 부모님들의 인식 부족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국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역할이 개인의 학업 성취 및 발전에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국학교에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졸업식과 보조교사 제도는 학생 수의 감소 및 학부모의 무관심이라는 한국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재미 한인 차세대로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수동적인 자세에서만 배우던 것에서 벗어나 리더로서 후배를 이끌고, 한국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섬김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를 기억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주말 한국학교에서 졸업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올해부터 졸업식을 시작해 보기를 권해 본다.



11년 전에 나는 다솜한국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당연히 다솜한국학교를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국학교를 졸업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네 살 때 다솜한국학교를 다니는 언니가 부러워서 토요일이면 울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최미영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4살 때 드디어 다솜한국학교 정식 학생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같은반이 아니라서 울고, 공부가 힘들어서도 울었습니다. 나는 부채춤도 언니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작아서 부채를 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타까우신지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께서 부채춤을 하지 말고 종이접기를 하라 하셨지요.나는 또 울었습니다. 부채춤을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할 때마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부채춤도 출 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11년 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말을 못했던 저에게 한글과 한국 역사 문화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1년의 많은 배움과 좋은 기억과 추억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솜한국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솜한국학교를 사랑합니다.

최하은 졸업생 학부모글

우선 이렇게 졸업생 부모로서 글을 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하은이의 졸업을 통해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에 온 지 8년이 지나가는데 거의 9할을 다솜한국학교와 보내게 되었네요. 꾸준히 다닌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데 그럴 때마다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때로는 라이드가 힘들어 굳이 계속 다녀야 하나? 학교 5일 중에 유일하게 늦잠도 잘 수 있는 토요일인데 하은이가 안 다닌다고 하면 쫓겠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하은이가 배워오는 책들과 질문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내가 배운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곳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으니 기뻐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교실에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또 어느 날은 하은이 학교 클라스에서 벌룬티어를 하는데 중국인 아빠가 물어 보기를 하은이가 모국어를 할 줄 아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쓴다. 그리고 하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 부럽다며 본인이 중국인 2세여서 영어가 더 익숙하고 중국말을 못하니 자녀들도 필요성을 못 느껴 공부 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모국어 구사 여부를 많이 질문 받게 되고 직장을 찾는 데에도 큰 경쟁력이 된다고 꾸준히 시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일이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손주 녀석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영어로만 말하니 세대간의 단절이 온다며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더 깊은 정서도 누리지 못함에 서글퍼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쓸쓸해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부모로서 더욱 힘을 쏟아야 함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언어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같은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솜한국학교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마다 송편 만들기며 강강술래, 팔씨름 등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겨울이 다가오기 전 김치를 담그시던 우리 어머니들의 김장 문화체험, 또 특활반(종이접기, 공예, 태권도, 사물놀이) 활동들... 하은이는 사물놀이 반에서 활동했는데 장구를 치며 여러 곳으로 봉사를 다녔던 모습이 선합니다. 초등학교생이었던 하은이의 옛사진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이 보입니다. 또 이 지면을 통해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부 행사와 여러 대회들... 또 좋은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솜한국학교의 이름을 빛내며 본인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고 더욱 우리말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었던 시간들... 모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하은이에게도 고맙고, 여러 선생님들의 이끌어 주심에도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은이가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AKS
SPECIAL

대학을 향하여...

한국학교를 떠나며...

다솜한국학교 졸업생 최인표

안녕하세요,
2019년 봄 학기를 끝으로 대학에 가게 된 보조교사 최인표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다솜한국학교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보조교사로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과 느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나누고 다른 학생들도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학생으로 시작한 한국학교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발표회 준비였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망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꾀꾀이 연습하고 공연을 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연기, 노래, 뉴스기자, 많은 역할을 해 봤지만, 다 다른 이유로 재미가 있었고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웃으면 준비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조금 있었던 제가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고 MC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무대에 서서 말을 해도 별로 떨린다는 기억이 잘 안들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한국어와 역사문화가 아닌 인생에서 필요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때 더 기를 쓰고 연습하고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솜밴드를 다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5명의 고등학생 아마추어 밴드였지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계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운다는 것이 어려웠고 밴드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연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지만, 다솜한국학교에서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배들이 연습해서 제2의 다솜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보조교사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사물놀이반입니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활동은 2주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원종은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한 사물놀이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반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몰랐지만, 다른 보조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별달거리 랩 가사를 못 외우는 학생들에게는 별을 쥐가며 다음 주까지 외워오라는 충고를 하면서도 1초 뒤에 웃으며 다시 연습하자는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웃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물놀이를 더 배우고 또다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랫동안 다솜한국학교를 다니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알리기 동영상 콘테스트 대상, SAT 한국어 모의고사 만점, SAT II Korean 만점,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 혼자의 힘이 아닌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의 지식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오랫동안 저의 담임선생님이셨던 박은경 선생님, 그 외에 다솜에서 만났던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토요일을 다솜한국학교에서 보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습니다. 저의 새로운 능력들과 관심사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대학에서도 다솜한국학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솜에서 만난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기준

초등부 : 유아,유치반 포함 초등부까지
5년 이상 재학

고등부 : 중,고등부 포함 4년 이상 재학

졸업식과 졸업생 현황:

48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 매 학년도가 끝나는 졸업식에 졸업식도 실시하고 있으며 2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모교에 돌아와 후배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의미

세종학교 졸업생 학부모 최희영
(최원형/최원옥 엄마)

미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에겐 초.중.고 등 미국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특별한 디플로마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세종학교 12학년 교과과정을 마친 것이다. 모든 미국에 사는 부모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두 딸들의 미국 학교 적응을 먼저 걱정했었다. 하지만 “영어는 자연히 한다. 한국 말이 나중에 문제된다”는 인생 선배님들의 말을 나는 조금 빨리 알아들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여러 종교단체에도 한글학교가 마련돼 있었지만 좀 더 체계화 되어있는 세종학교에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었지만 12년 동안 두 딸이 각각 세종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나와 딸들의 인생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주말에 몰려있는 악기레슨과 스포츠활동을 포기하고라도 세종학교로 발길을 돌린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 한 일이다. 한글 이외에도 무용, 역사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 준 점 역시 좋았다. 덕분에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든 큰 아이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한글 좌판을 익히고 컴퓨터를 통해 한국의 이모저모를 탐방하고 다녔다. 또한 세종학교의 도움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운까지 누렸으니 내가 세종학교에 고마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세종학교는 우리 학부모에게도 특별한 장소였다. 아이들이 한글수업을 받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며 미국생활에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선배 학부모들에게서 듣는 조언들은 그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이었기에 나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요즘 가족 단톡방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종학교에 감사를 하게된다. 그 대화가 영어가 아닌 한국말이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의 삶을 깊게 교감하는 매개체가 됨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약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큰딸과 간호학을 공부한 둘째 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분들에게 한국말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세종학교라는 소중한 장소가 미시간에 있음을 다시 감사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가족이 느끼는 소통의 행복감을 다른 한인가족들도 꼭 느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큰 의미의 또 다른 시작
한국학교 졸업식

열린문 한국학교 교감 이수경



“한국학교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들어 여러 부모님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학교의 경우 2002년 제1회 졸업생을 낸 이후 5년 전까지만 해도 15년을 통틀어서 10명이 넘지 않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두 명의 졸업생 또는 졸업생이 없는 해도 많았습니다. 졸업반을 운영할 학생수가 되지 않아 두 반을 합반하여 수업을 진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대영 전 교장 선생님께서 5명의 학생이 졸업반으로 모인다면, 졸업반을 분리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셨고, 고급반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학생과 부모님을 설득하여, 졸업반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학교 졸업기준과 졸업식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열린문 한국학교 졸업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졸업 기준은 재학 기간은 6년 이상, 전학생의 경우 고급반 3년 이상은 수학해야 하며, 출석일수 80% 이상, SATII모의고사 성적 80% 이상, TOPIK 4급 이상, 워싱턴지역협의회 고급 단어 시험성적 80% 이상, 애국가 1절~4절까지 완벽하게 쓰고 부를 수 있어야 하며, 졸업반 평균 성적 70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졸업생은 졸업식 당일 해당연도의 태솔과 졸업복을 입습니다. 또한, SATII 모의고사에서 90% 이상의 성적, TOPIK 4급 이상을 받은 졸업생은 각각 다른 색깔의 HONOR CODE를 받게 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졸업식 순서에 따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생에게 한 명씩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생은 무대에 도열해 섭니다. 그 후 우수 학생 한 명에게 교장상 수여가 있습니다. 다음해 졸업반으로 올라갈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와 졸업생과 함께 섭니다. 졸업식 노래를 서로 화답하면서 3절까지 부릅니다. 졸업식 노래가

끝나고 나면 후배들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졸업생들이 준비한 연주 또는 비디오 클립 등을 상영합니다. 졸업반 담임 선생님이 만든 학생들 사진 영상이 흘러가는 동안 졸업생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또한 졸업한 후에 보조교사로 봉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SATII Subject test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생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졸업 후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이라는 시간을 한국학교 학생으로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학교 교사를 돕는 또 다른 교사로 한국학교에 오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졸업식은 수 년간 토요일의 달콤한휴식을 반납한 의미있는 결실의 시간이고, 졸업 후 보조교사로서 내가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는 다음 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시고 학생들을 격려하시고 학교로 데려 오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졸업기준과 졸업식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신다면, 그 학교만의 특별한 한국학교 졸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학교 졸업생 어머니의 글을 더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열린문 한국학교 덕후

졸업생 학부모 **구정선**



양상했던 가지에 연두빛 잎들이 무성히 자리 잡아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생기가 느껴지는 봄이 참 좋습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봄이라는 자연 이치에 걸맞지 않게 학년을 슬슬 마무리하는 미국 학기 제도에 ‘왜일까?’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일 년에 배움의 마무리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연결이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는 십 년이란 한국 학교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맞이하는 채원이와 세종반 친구들에게 걸맞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또 다른 시작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신기하게도 채원이는 황금 같은 토요일 아침 한글학교 가는 것을 자기의 천직인 듯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팔학년인 지금도 어김없이 신바람 나게 가는 모습을 보며 공부하러 가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잠시 뒤돌아보니 한글 학교 안에 이 아이를 향해 부어진 사랑, 수고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아지며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국학교 문을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로 ‘채원아~’하며 반겨주는 선생님들, 매주 만나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재회하듯 깡충 뛰며 반가워하는 친구들……. 지금의 세종반 친구들은 집과 한국학교 말고는 잘 불리지 않는 한글 이름 부르는



죽마고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해마다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전통놀이를 즐기고,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고, 김장철엔 김치도 담그며 문화를 놀이로써 자연스럽게 익히며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뿌리를 깊게 내려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님의 글짓기 대회를 통해 선조들의 목숨을 건 나라 사랑의 본을 배웠고 그 희생에 참여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교 안에 이 아이를 향해 부어진 사랑, 수고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아지며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국학교 문을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로 ‘채원아~’하며 반겨주는 선생님들, 매주 만나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재회하듯 깡충 뛰며 반가워하는

친구들……. 지금의 세종반 친구들은 집과 한국학교 말고는 잘 불리지 않는 한글 이름 부르는 죽마고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새해마다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전통놀이를 즐기고,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고, 김장철엔 김치도 담그며 문화를 놀이로써 자연스럽게 익히며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뿌리를 깊게 내려갔습니다.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님의 글짓기 대회를 통해 선조들의 목숨을 건 나라 사랑의 본을 배웠고 그 희생에 참여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 오빠, 언니들이 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꿈을 그려보고 품게 되는 귀한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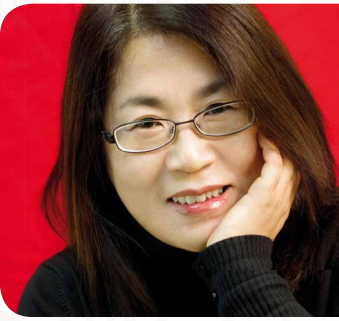
열린문 한국학교의 다양한 각도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르게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된 우리 아이들을 보며 디아스포라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꼭 보내야 하는 곳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더 쓰라 하시면 석 장은 죽히 쓸 수 있는 열린문 한국학교를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광팬 엄마입니다. 앞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나면 두 팔 걷고 열린문 한국학교 보내기를 권하겠습니다.



남서부 지역협의회 / 달라스한국학교

졸업의 눈물

박인애 (졸업생 학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 박예은의 엄마 박인애입니다. 우리 예은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4살이 조금 안 되었을 때부터 15살이 된 지금까지 달라스한국학교를 11년 동안 다녔습니다. 라이드를 제가 하였으니 저도 꼬박 11년을 다닌 셈입니다. 한국학교가 교회 건물을 캠퍼스로 빌려 쓰다 보니 사정에 따라 여러 번 옮기게 되었습니다. 뉴송교회에서, 구 큰나무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지금의 캐롤튼 큰나무교회로 옮기기까지 따라다니느라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도 설렙니다. 하이웨이 운전을 못 해서 로컬로만 다니는 저에게는 학예회를 참석하기 위해 빛내리교회에 가거나 옮긴 캠퍼스를 찾아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또한 힘들고 긴 마라톤 경주였습니다. 달리다 보니 목이 마르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점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백 팩을 메고 한글학교를 가던 꼬마가 이제 저보다 키가 큰 숙녀가 되어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들어간 병아리 반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율동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재미있어 했고, 뭇보다 정서가 비슷한 한국 친구가 생겨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재미있게 다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도 많고 시험도 어려워지니 점차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학교에서는 성적이 늘 상위권인데 한국학교만 가면 낮은 점수를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만 못한다며 울기도 했고, 사춘기 때는 내가 왜 한국학교에 다녀야 하나며 눈에 흰자만 보이도록 저를 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다니라고 다독였지만, 위로가 안 되는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을 쳐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한국어만 더했습니다. 야단을 치고 다했을 뻔했다면 더 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한국어가 클릭 된 것은 열 살 때였습니다. 한번 길이 트이니 놀라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그냥 흘러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우등상을 받았고 자신감이 붙은 아이는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격몽요결을 읽었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고 부모는 공부하는 습관만 들여 주면 된다는 저의 믿음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는데,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아리 반부터 가장 높은 학년까지 다녀 졸업한 학생의 부모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국학교에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라스한국학교에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많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하며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릅니다. 공부를 잘못해도 잘하는 형제자매나 다른 아이와 아이를 절대로 듣는 데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의욕을 잃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라지도 않은 싹을 밟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주시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함께 앉아 본을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부모님은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딸이 한국어능력평가 4급 시험을 볼 때 6급 시험을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어렵더군요, 학부모가 시험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공부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아도 되는 좋은 드라마나 예능은 한글 자막이 나오는 것으로 선별하여 함께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에 내주는 숙제를 해가도록 도와주시고 복습시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숙제 도와줘 본 부모님은 느끼셨겠지만, 한글이 많이 바뀌었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미국에 산 지 오래된 본들은 알쏭달쏭한 것이 참 많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학년 때부터 아이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부모님 한국어도 향상되어 일석이조입니다.

11년 동안 예은이가 통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열 분이십니다. 김영훈 선생님이 2년 연속 담임을 하셨죠. 두 분의 이름은 잊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 봅니다. 조신애, 김나영, 김국희, 김종은, 정해정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장운영, 전정문, 김영훈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권예순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앞에서 챙기시는 모습 참으로 분이 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예은이는 달라스한국학교에서 배운 게 감사하여 보조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봉사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같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고급과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에 능통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졸업생 구두 시험 규정(예)

가. 졸업 선발 규정

1. 본교에 3년 이상 출석한 학생 9학년 이상으로서 아래 조항 중 3가지 이상을 통과하면 졸업생으로 인정됨
2. 졸업 필기 시험 통과 -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로 대체 가능
3. SAT 한국어 모의고사(700점 이상)
4. TOPIK 시험 4급 이상
5. 구두 시험 또는 “나의 꿈”말하기(2~3분, 마지막 시험문제)
6. 졸업 에세이 작성 (단, 학교장의 권한으로 기타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음)

* 졸업생은

1.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
2. 졸업생일 경우 졸업장을, 수료생일 경우는 수료장을 받고 졸업함
3. 졸업식에서 한국학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4. 일년에 한 번씩 선생님과 함께 모임

나. 졸업 문제 영역 (각 영역별 한 문제씩)

1. 한국 역사
 - ▶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사
 - ▶ 인물 - 단군,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장보고, 세종대왕, 이순신, 권율, 유관순, 안중근, 이승만, 김구, 이항, 이율곡, 신사임당, 한석봉, 김정호, 광개토대왕 등
 - ▶ 사건 - 삼국통일, 한글 창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해방, 대한민국의 탄생, 한국전쟁 (6.25), 오늘날 대한민국
2. 한국의 전래 동화: 금도끼 은도끼, 의좋은 형제, 청개구리, 흥부놀부, 콩쥐팥쥐, 꽃감과 범, 흑부리 영감, 선녀와 나무꾼, 해와 달, 황희 정승 이야기, 심청이, 바보 온달, 별주부전, 함정에 빠진 호랑이, 토끼와 거북이, 구두쇠 영감, 장수바위 등
3. 한국 문학/시: 소나기(황순원),사랑 손님과 어머니(주요섭),진달래꽃(김소월)
4. 한국의 문화: 붓글씨, 사군자, 음식(김밥, 비빔밥, 전, 송편, 떡국 등), 명절(설, 추석), 국경일 -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7/17), 개천절 (10/3), 한글날 (10/9)

다. 시험 시간 및 답변 요령

1. 시험 시간 ▶ 약 30분
2. 시험 장소 ▶ 한국학교
3. 문제 양식 및 답변 요령
 - ▶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학생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여 답변하도록 함.
 - ▶ 질문은 역사 연대기, 인물, 사건, 전래 동화, 문학, 문화의 여섯 개 영역에서 주어지게 됨.
 - ▶ 질문당 답변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도록 함.
 - ▶ 상황(도서관, 상점, 음식점, 학교 등)이 주어지고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극과 “나의 꿈 말하기”이 추가될 수 있음.

라. 문제 및 답 예제 (SAMPLE QUESTIONS AND ANSWERS)

1. 한국 역사

[질문] 고조선에 대하여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고조선의 BC 2333년에 세워진 최초로 한민족이 세운 국가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단군이 세운 나라입니다.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처음으로 나오며 아사달 또는 평양이 수도였다고 합니다.

3. 역사적 사건

[질문]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까지 일본의 무력 침략으로 인해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창씨 개명과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한국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광복을 위하여 많은 애국열사들은 중국에서 무장 투쟁과 임시 정부를 통해 일하였습니다.

2. 역사적 인물

[질문]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는 조선 시대에 가장 본인이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답변]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 4대 왕으로서 조선 초기에 나라의 과학, 경제, 국방, 예술, 문화의 각 분야에서 찬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1443년에 만든 훈민정음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장영실이라는 과학자를 통해 해시계(앙부일구), 물시계(자격루) 등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4. 한국의 전래동화

[질문]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답변] 네, 저는 전래 동화 중에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형 놀부는 마음대로 하는 심술쟁이에 사나운 욕심꾸러기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흥부네 식구들을 쫓아냈어요. 흥부는 자식이 많은 데다가 가난하기도 했어요. 흥부는 형네 집에 가서 보리쌀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밥주걱으로 흥부를 철썩 때렸어요. 그리고는 흥부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따뜻한 봄이 왔어요. 가난한 흥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죠. 어느 날 제비 집에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죠. 흥부는 급히 구렁이를 내쫓았지만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흥부는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흥부네 집을 한 바퀴 돌고는 하늘 멀리 날아갔지요. 다음해 봄이에요. 어디에선가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지요. 흥부는 박씨를 담 밑에 정성껏 심었어요. 며칠 후 금세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와 아내는 박을 탔어요. 첫번째 박에서 흰쌀이 쏟아져 나오고, 두번째에서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수들이 나와서 대궐같은 집을 지어주었죠. 그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박이 열리고 놀부 부부는 박을 탔어요. 첫번째 박이 갈라졌는데 더러운 것들이 온 집 안에 가득 찼어요. 두번째 박을 탔을 때 도깨비들이 나와서 마구 때리고 집도 망가뜨렸어요. 그 후에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흥부와 놀부는 의좋게 살았어요.

라. 문제 및 답 예제 (SAMPLE QUESTIONS AND ANSWERS)

5. 한국 문학

[질문] 수업 시간에 배운 시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답변] 네, 지난 수업 시간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배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시에서 제가 배운 것은……
(본인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7. 상황극 (도서관)

- 상황에 따라 학생이 먼저 역할을 고르도록 함.

A: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B: 네, 책을 찾고 있는데요, '한국어 8'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혹시 출판사를 알고 계신가요?

B: 출판사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A: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전화 통화후) 2층에 있는 교과서 판매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B: 아, 감사합니다.

8. 나의 꿈 말하기

6. 한국 문화

[질문]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요? 만드는 법이나 먹는 법을 설명해 보세요.

[답변] 저는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별다른 재료가 없이도 집에 있는 반찬으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계란과 당근, 버섯이고 시금치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빔밥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김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원 한마디

“세월이 쏠살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처럼 19대 임원님들과 처음 만나서 2년을 기뻐하던 때가 얼마 전인데 벌써 19대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되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했는데... 이 글을 쓰느라 잠시 돌아보니 지난간 시간이 감사의 연속이었네요. NAKS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임원님들과 지역협의회 회장님들께 특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차세대 양성을 위해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애쓰고 계신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남은 임기 동안 저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또한, 한국학교에 오는 학생들 마음속에 한국이란 멋진 나라에 대한 추억과 지식들이 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봉사와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정선미 총회장



한연성 부회장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지만 돌아보면 계획했던 것에 많이 못미치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써 한국의 얼·말·글을 지켜가는 일들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배우고 보람을 갖게 됩니다. 꿈이 자라고 미래가 자라는 의미있는 일들이라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여 오늘에 이름을 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자녀들의 성장을 도운 학부모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NAKS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쪼개고 능력을 나누었던 우리 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면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지현 부회장

안녕하세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부회장 임지현입니다. 하루가 편하면, 한 달이 편하고, 한 달이 편하면 그 일년이 편하다는 말이 점점 더 마음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공중보건과 건강이 화두로 떠오른 2020년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가 편안한 일년으로 이어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을 위해 봉사 하시는 수 많은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심수목 부회장

안녕하세요? 제19대 부회장 심수목입니다. 지난 2년간 낙스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또 임원님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낙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낙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단체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훈 교육 간사



NAKS집행부의 한 부분이 된지도 이제 2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NAKS를 좀 더 가까이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지역 회장님들과 이사님들을 비롯해 이곳 저곳에서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앞을 보며 두서없이 달렸으나 그 다음 집행부와 NAKS에 누가 되진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20대 집행부의 힘찬 도약도 기대해 보며 NAKS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와 격려로 힘껏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령 웹간사



안녕하세요. 19대 웹간사 남궁령입니다. 낙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를 통하여 섬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을 떠나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겐 전해줄 소중한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설레입니다. 낙스는 "가족"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아빠가 되도록 우리의 미래가 태어나 자라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요.

한희영 사무총장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NAKS 19대 임원으로 쓴 에너지는 고스란히 제게 좋은 만남으로 보답해주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번 7월 38회 학술대회가 사상 초유로 연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지만 이 또한 후대에 진한 추억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겸허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낙스회원님들께 힘내서 함께 이겨나가자고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승진 홍보

물이 눈에 들어 버를 살리고, 산에 들어 풀나무를 살리듯이 한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 다음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낙스 19대 임원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새겨 볼수록 따뜻한 추억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소명에 나름대로 힘을 다해 값진 보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기를 맞은 NAKS-ACTFL 교사인증제 연수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시며 과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서 한국학교 교사로 한층 더 전문성을 갖춘 한국학교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낙스의 선생님들, 지역협의회장님들, 집행부 임원님들과의 좋은 만남은 새로운 도전을 잉태하고 또 다른 시작과 새로운 무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가슴이 부르는 다음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안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미 재무

먼 태평양 건너 오면서 땅 한반도는 들고 오지 못했지만 가슴속에는 한국인의 정신은 담아왔기에 우리의 가슴속에는 대한민국의 얼이 있습니다. 이 얼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의 프로정신과 봉사 정신으로 이어온 낙스 40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 들어와서 그동안 낙스를 지켜온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 전 역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신 속에 한국인의 말·글·얼을 담아 주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참으로 소중한 단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유산을 발판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낙스의 몸부림도 느껴집니다. 저 개인은 너무 작지만 우리가 함께 NAKS의 이 귀한 정신을 이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큰 보람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재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NAKS의 역사성에 어울리도록 재정관리의 정직성은 물론 전문성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청지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한국학교에 반납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NAKS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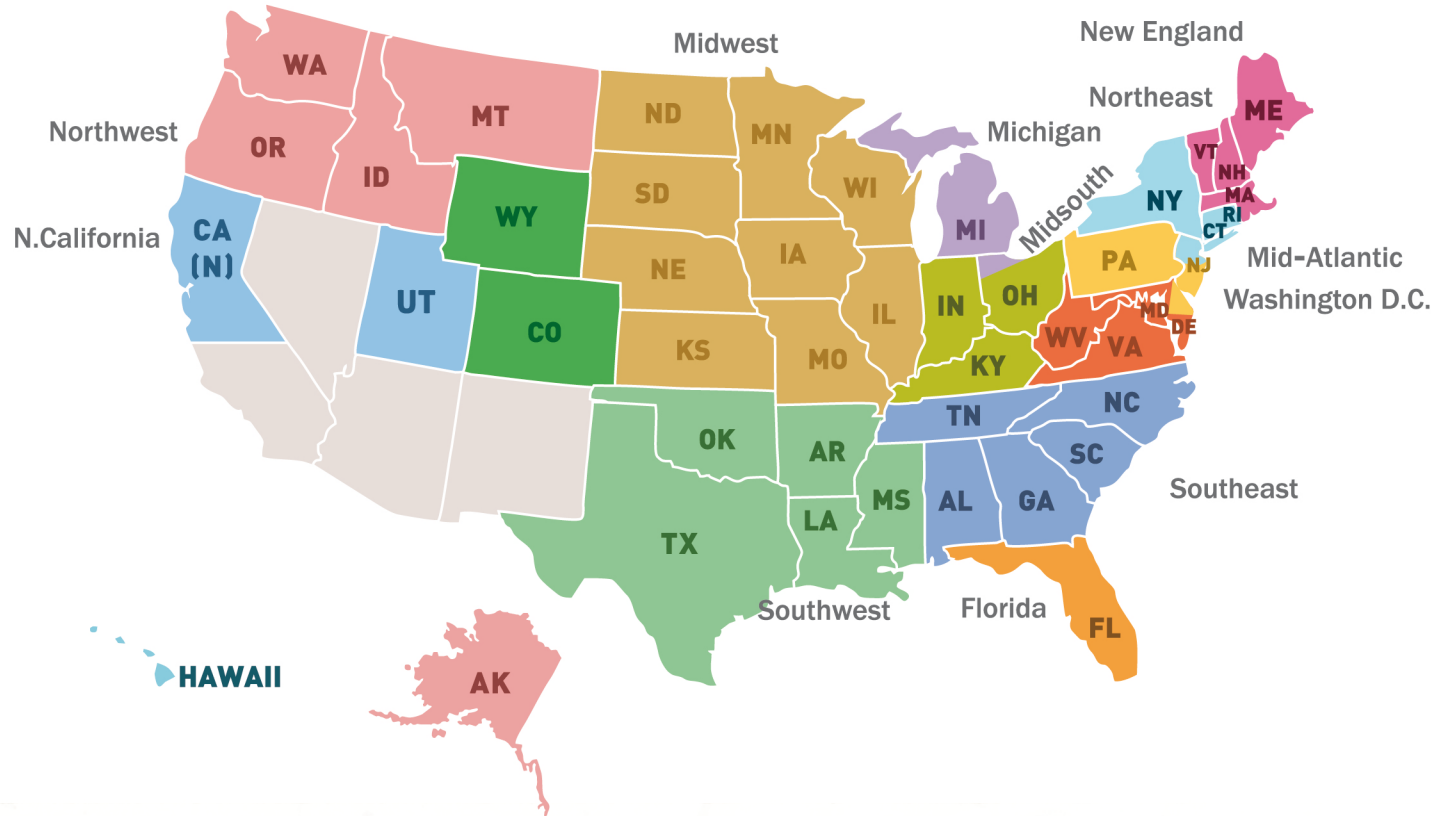


권예순 편집장

NAKS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지난 2년, 참 행복하고 보람이 컸습니다. 회원교과 교사분들을 위해 회보와 한인연구를 발간하기까지 힘이 들었지만 완성된 책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매번 새롭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의 회보가 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총회장님, 지역협의회장님 여러분, 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인연구지에 수준 높은 학술논문과 기고문을 주신 국립국어원과 한국어학과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역사 문화 관련 학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대 NAKS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난 2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2021년에 40주년을 맞는 우리 NAKS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역협의회 분포도



AR, LA, MS, OK, TX	남서부 지역	박 은 주	Eun Ju Park	713-805-3855	swc@naks.org
MA, ME, NH, RI, VT	뉴잉글랜드 지역	남 일	Il Nam	508-523-5389	newec@naks.org
AL, GA, NC, SC, TN	동남부 지역	선우인호	Alex Inho Sonu	464-644-7572	sec@naks.org
CT, NJ, NY	동북부 지역	김 혜 성	Hye Sung Kim	832-794-2012	nec@naks.org
DE, NJ, PA	동중부 지역	이 경 애	Kyong Yi	267-255-1726	mac@naks.org
MI, OH	미시간 지역	김 선 미	Sunmi Yoon	248-562-7741	mic@naks.org
CA, UT	북가주 지역	황 희 연	Hee Yeon Hwang	650-759-6886	ncc@naks.org
AK, ID, MT, OR, WA	서북미 지역	박 수 지	Suzie Park	253-569-1235	nwc@naks.org
DC, MD, VA, WV	워싱턴 지역	김 선 화	Sylvia Kim	240-252-9596	dcc@naks.org
IN, KY, OH	중남부 지역	구 교 성	K. S. Ku	614-721-1444	msc@naks.org
IA, IL, KS, MN, MO, ND, NE, SD, WI	중서부 지역	이 미 희	Mihee Lee	847-400-7662	mwc@naks.org
CO, WY	콜로라도 지역	유 미 순	Kristie Yoo	720-252-3295	coc@naks.org
FL	플로리다 지역	김 진 희	Jinhee Kim	813-731-9747	flic@naks.org
Hawaii	하와이 지역	손 애 자	Aei Ja Son	808-343-8045	hic@naks.org

STUDY KOREAN

http://study.korean.net

한글 · 문화 · 역사 교육사이트 스터디코리아

스터디코리아 소개

스터디코리아는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대상 한글 · 문화 · 역사 교육사이트입니다.

한글교육 및 한국 문화 · 역사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정체성(뿌리의식) 함양과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제고에 유용한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인증과정 이용방법 안내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Korean School Teacher's Certification Course)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정규과정은 1, 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 2단계 이수자와 경력교사를 위한 활용과정도 운영중입니다.



제공 콘텐츠 소개

e-교육과정

교사를 위한 e-교사연수,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EBS에서 제공하는 EBS 콘텐츠와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EBS 클립뱅크 등이 제공되며, 국악, 인문과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제후학습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문화 · 역사

K-POP 한국어 가사, 드라마를 통해 대사를 익히고, 재미있는 동요와 전통음악인 국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와 재외동포 이주사, 동북아 역사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속의 한국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사자료실

한국어 수업에 필요한 한글학교 한국어부터 ICT자료, 수업에 날개달기 등의 수업자료,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는 우리말 윤내기 자료, 한국어 수업과 관련한 각종 연수 및 학술 자료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 자료

학습 시 활용할 연습지, 그림카드, 낱말카드, 그림판 등 한글학교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생님의 수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사이버 공간에서 전세계 한글학교 소식, 한글학교 정보, 질문과 상담은 물론 한글학교 제작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 전자책, 오디오북, 플래시북, 동영상북, 영어책 형태로 제공
- 유/초/중등 대상의 위인전, 동화, 문학, 역사 관련 최신도서들 전자책 형태로 제공합니다.(다중독서 가능)
- 전자도서 초등용 5,610종/중등용 1,450종

한글학교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제39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1년 7월 29-31일, Philadelphia, PA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 Philadelphia, PA 1911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copyright © 2020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 reserved.

ISBN 978-1-7331240-1-9



9 781733 134019 >